

성도의 벗 12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3절~14절〉



그림설명

표지그림 :

아놀드 후라이백작

“예수를 찾는

동방박사”

뒷표지그림 :

홍 석창작

“산과 물이 있는

곳”

카드도안 :

홍 석창



성도의 벗

제 3 권 제 11 호 순 서 1967년 12월호

권 두 언.....	배 일 문... 2
대관장 말씀.....	데이비드 오·멕케이... 4
1967년도 마 지 락 지방대회.....	8
서부지부 헌당식 거행.....	16
전주지역 첫 집회를 갖다	20
첫 침례식을 행한 두 지역<대전, 영등포지역>.....	22
광주지부장단 조직	24

□ 특 집 □ 크리스마스 이야기.....25

<이달의 찬송> 제 113 장 주 이름으로 상징물.....	정 대관...43
계보사업의 한해를 돌아보며.....	박 재암...46
지부소식.....	48
<특별연재> 엠마 레이 릭스 멕케이의 추억 (3).....	52
성도의 벗 퀴즈 (제 9 회).....	59
<고백 수기> 다른 사람은 알까요?	필자익명...60
편집자에게.....	65

사랑하는 벗과 성도들에게 :

크리스마스는 한 아이가 탄생한 날을 축하한다거나 예수가 세상에 태어났음을 상기하는 것 이상의 뜻을 지닌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약 2000년 전, 유대땅 베들레헴에 탄생한 예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놀라운 사실을 되새겨보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는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곧 모든 인류가 탄생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셨다가 자기를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받은 것 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즉 자기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자기 아버지로 부터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아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 세상을 살았거나 살고있는 모든 사람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인류

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난의 가시
밭 길을 걸으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남을 위
하여 자기를 잃는 것이 자유와 행복
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
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탄생이 주는 의미는 그
분 처럼 남에게 후히 주라는 것입
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세주의
탄생을 진정한 의미에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한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의
크신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는 사랑과 화평의 축복이 여
러분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배 일 문
한국 선교부장



기쁜 소식

대관장
데이비드 오·맥케이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
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
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
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8절~14절〉

이제까지 들어온 이야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의 하나입니다. 수 없이 반복하여 익혀온 이야기지만, 들을 때마다 감동과 만족감을 얻고는 합니다. 이유는 이 말씀 속에 인생의 의미가 서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역사학적인 의미

에서 볼 때 예루살렘에 버금가는 팔레스타인의 도시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제 5장에 보면, 다윗의 성읍인 베들레헴이 메시아의 출생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계시가 주어진, 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의 마음속

에 이 예언이 꼭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이 없었던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란 그것을 받기 위하여 스스로 준비하지 않고, 또 합당한 생활을 영위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임하지 않는 법입니다. 인간이란 나쁜 영향력의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다, 결국 그런 것을 극복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맙니다. 악한 것은 항상 번잡스럽고 유혹이 강하며 장래를 약속하는 듯이 보이는 게 특색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노력하여 탐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 7:7) 우리들은 열심히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는 저 겹겹한 목자들이야 말로, 모든 유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야가 곧 임신한다는 희망을 마음속으로 갈구하였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현이 이들 겸손한 사람들에게 열리지 않았습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헬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바 이

루어진 일을 보자」(눅 2:15)

이들 목자는 「나는 이 예언이 정말인지 모르겠어.」라고 말하지 않았읍니다. 또는 「가서, 우리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알아보자」고도 하지 않았읍니다. 그들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고,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그가 비록 보잘 것 없는 유대의 마굿간에서 태어났으나 때가 이르면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의심없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위에 말씀드린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여러분이라고 하여도 그리스도는 탄생하셨고, 현재도 살아계십니다. 그가 태어난 사실을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들을 시켜 알리셨다는 확신을 갖게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이 지상에 사는 목적에 대한 회의가 다시는 고개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간증이 가진 바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몇몇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스러운 인간의 존

재라는 계시는 훌륭한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통털어 이에서 더 숭엄한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위에 열거한 사항들을 확신하는 태도의 소유자에게만 성탄절은 성스러운 중요성을 갖게 마련입니다.

성탄절의 정신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형제이며, 그 분이 계시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 다 함께 살고 싶다는 감정이 나타나야 하는 계절입니다. 그리하여 선한 목자들이 믿는 가운데 여행에 임하였던 것 처럼 우리들 모두가 만왕의 왕이 계시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감정이 굳어져야 하는 때입니다.

하늘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목자들의 마음속에 움텄던 확신과 함께 성탄절의 정신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속에 인생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그 분들이 누구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도 전에 영생을 알가일부하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요 17: 3).

어떻게 하면 천사들이 노래한 그 화평의 경지, 또는 말기유에 마리아와

함께 누운 아기를 보고 목자들이 지녔던 화평스런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말기유를 오늘 날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잘못입니다. 말이나 다른 짐승들이 먹고 자고하며 그 옆에서 주인이 누어자는 손이 안 간 장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은 그런 화평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최상의 축복입니다. 그것은 무기력한 상태나 운동 과소의 상태가 아닌 동적인 화평입니다.

부활한 몸으로 열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심중에 깃들었던 평화스런 상태를 상상하여 보십시오(요 20: 21). 그러한 상태는 간사한 속임이나 논쟁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에머슨은 「정의의 승리만이 이런 화평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의의 승리란 화평을 위협하는 여섯 가지 적, 탐욕, 육욕, 속된 야망, 시기, 노여움과 자만심의 승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들 여섯 가지는 광야에서 주님을 유혹하기 위하여 사탄이 사용한 요소들입니다. 인간을 지배하여 왔으나 종말에는 그들을 파멸

로 이끈 억제 못하는 열정, 무절제한 욕망, 시기, 증오, 부와 권력, 이러한 조건은 화평의 적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비참한 환경을 안겨다 줍니다. 가정의 불행을 초래케 합니다. 세상에 전쟁과 분쟁과 불만, 비참, 죽음을 가져 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주신 화평과는 정반대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왜 인간은 마음에 자리잡고 있는 이들을 축출하고 탐욕을 억제하는데 열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얻으려는 발버둥질은 강한테 버리려는 노력에는 왜 인색합니까?

정의가 악을 이길 때에만 그리스도가 세상에 전하여 준 화평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위에 든 여섯 가지 감정 중의 하나에라도 익숙한 사람은 화평을 논하지 못합니다. 화평을 갈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만 그것의 댓가를 지불하려는 사람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오히려 옳지 못한 것에 더 애착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손에 넣을 때에만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인

간이 자신의 행복과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얻지 않는 한 화평은 얻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한다는 방법으로 이웃에 봉사할 때 그리스도가 원하는 화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보다는 「의로운 삶과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찾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천사들의 합창에 나타난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 : 14)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것은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는 것입니다(마 22 : 40).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눅 10 : 27)이 말씀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를 노래한 천사들이 예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967년 도
제4차(11월)

한국 지방대회

대회주제 : 모든 회원은 선교사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벗들과 자리를 같이하는 1967년도의 마지막 지방대회가 지난 11월 18, 19일과 25, 26일에 서울과 대구에서 각각 있었다. 「모든 회원은 선교사」라는 주제로 모였던 이해의 마지막 지방대회는 우리가 알고있는 복음을 간증으로 나타내고, 그리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형제임을 알게하자는 평소의 우리의 신앙을 다짐하는 열의로 가득찬

던 지방대회였다.

>서울 지방대회<

18일 오후 6시 배 일문 선교부장님에 의해서 감리되고 차 종환 지방부장님이 사회한 신권회는 이번 지방대회가 선교사 임직기간에 마지막 기회가 되는 서부지부의 리브장로의 「신권을 옹기 행사하는 사람은 과학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빛을 가지고 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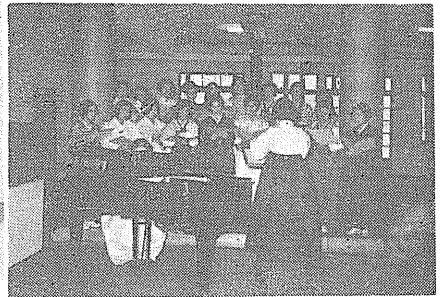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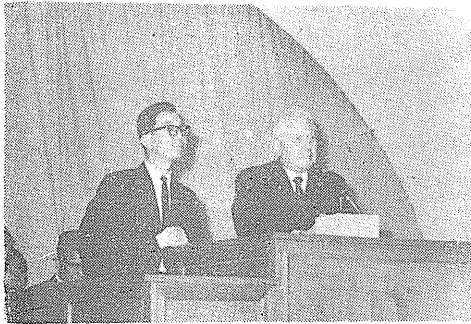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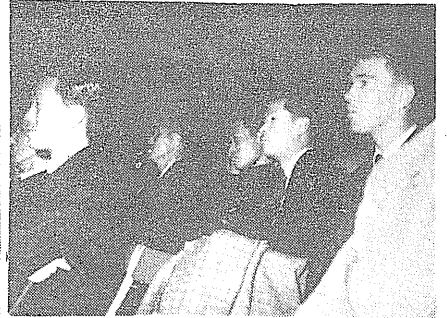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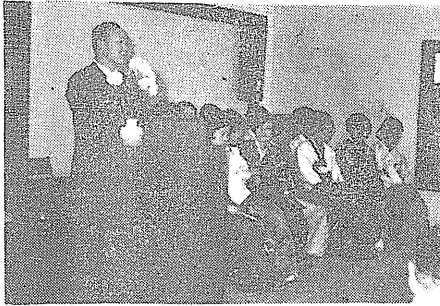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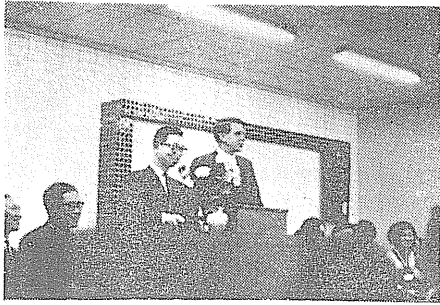
(9 페이지의 사진 설명)

좌상으로부터 : 27일 대구에서 말씀하는 선교부장님. 26일 대구에서 말씀하는 지방부장님. 케네디 형제. 19일의 전체역원회 광경.

우상으로부터 : 19일의 개회식 광경. 말씀을 듣는 회원들. 상호부조회 합창단. 26일 대구의 폐회식 광경. →

사진 : 19일 제1총회에서 역원을 지지하는 참석자들





간증과 김 성문 장로의 「합당하게 주어진 신권의 행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간증과 김 석모 형제님의 「신앙안에서 커지는 생활의 자유스러움과 축복」의 간증을 들은 후, 선교부장 제2보좌로 봉사하는 이 호남 형제님의 「바로 지금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갖기 위한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신권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

인천을 포함한 서울지역의 형제들은 예수께서 행사 하셨던 신권의 의로움을 기억하며 신권 소유자의 사명을 되새겨 갖는 모임이었으며, 같은시간에 서부지부에서 갖은 상호부조회 전체役員회는 일 년에 두번(봄, 가을) 갖게 된 상호부조회 대회를 준비하고 역원의 자질 향상과 친목을 위한 분위기로 가득차 있었다.

둘째날인 19일의 첫 모임은 8시30분부터 선교부장님이 소집한 지방부 예하 모든 조직의役員회가 선교 본부 강당에서 시작됨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선교부장님은 지난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있었던 아세아 지역 선교부장 세미나에서 토의 된 「우리는 모두 선교사」라고 말씀하신 대관장님의 말씀에 따른 회원 배가 운동에 대한 말씀이 있었으며 모든 역원은 이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모임이었다.

이어서 10시부터 안식일에 모여서 복음을 들을 수 있음을 감사하는 “오! 사랑스러운 아침”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제1총회가 선교부

장님의 감리하에 지 영달 형제의 사회로 열렸다.

선교부 행사에 나선 이 호남 형제는 지방부장 제2보좌로서 봉사하던 지 영달 형제를 대신해서 계보담당 평의원으로서 봉사하는 박 재암 형제가 일하게 되었음을 발표하였고, 지방부 행사에 나선 차 종환 형제님은 지방부 상호 부조회 재정 서기로 최 장순 자매, 문학 교사에 강 태영 자매의 지지를 물었는데 참석한 5백여 성도들은 노고를 감사하면서 새로운 역원을 지지 하였다.

말씀으로는 광주 지부 개척 선교사로서 수고 하였고 인천지역의 주임 선교사로서 11월 28일 이한 하계된 할 장로의 「아들 딸을 진정 사랑하면 선교사로 보내달라」는 선교사로서의 보람을 들은 후 역시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되는 선교 본부 소속 선교사 천 낙서 장로의 그간의 축복의 간증을 들었다. 이어서 지방부장 제1보좌 이재수 형제는 「우리의 신앙과 회원 배가 운동은 정비례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 있었으며 이어서 등단한 팔머 자매의 「십일조의 법과 축복」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 또박또박한 한국말로 얘기해 주신 팔머자매의 말씀은 복음안에서의 동화로 흐뭇하였으며, 이어서 항상 우리에게 감동을 느끼게 해주시는 선교부장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의 빛(간증)을 세상에 바치는 것은 의무」라고 강조 하시고 「진실한 신앙을

갖고 침수로 침례를 받고 매일에서 합당한 생활을 할때 여러분의 소망이 축복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말씀을 선교사로서 봉사하던 지난날의 축복을 예로서 말씀해 주셨다.

제1 총회를 마치고 헤어졌던 성도들은 「난방장치의 모금」을 위해 동부 지부에서 준비한 떡국으로 점심을 들면서 지난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전했다.

오후 2시부터 있었던 제2총회는 지방부장 제2보좌 이 재수 형제의 사회로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되는 인천 지역의 장 병훈 장로와 영등포 지역의 벨슨 장로의 간증과 광주지부에서 참석한 윤 상현 형제, 영등포 지역의 슈미트장로, 회원배가운동의 지방부 책임자로 봉사 하게된 한 인상 형제의 간증에 이어 지 영달 형제의 「나는 어떻게 말일성도가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 그는 「회원들의 옳은 신앙 태도는 이웃을 불러 모은다」는 얘기로써 회원 배가 운동에 앞장 설것을 제창하였다. 이어서 한국의 국빈으로 미국에서 온 데이비드 케네디 형제의 간증을 들었다. 참석한 모든 사람은 신앙으로 굳어진 그의 겸허한 모습과 분위기에서 더 한층 따스함을 느낄수 있었다. 특히 「나의 경험으로 보아 복음 가운데 살 때 축복이 늘 따른다는 것을 안다」는 말씀은 감명을 주는 것이었다. 그는 10억불의 장기차관을 정부와 상의하기 위해서 왔으며, 정부대표와 협의중 집회에 참석하기위해

회의 도중에 나왔었다. 네쇼널 일리노이즈 은행을 비롯하여 다섯개 은행의 총재로 있는 그는 물몬으로서는 다섯번째의 부자로서 십일조를 많이 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이어서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차 종환 지방부장님의 말씀이 있었다.

늦 가을 오후 올해의 마지막 지방대회를 마치기 위해서 「우리 다시 만나 불동안」을 부를때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전해 받을 수 있었던 복음의 감사가 얼굴 가득 했으며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을 못내 감추지 못해했다.

>남부 지방대회<

남부 지역의 여러 곳에 흩어진 성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택했던 대구 중앙지부에서의 지방대회는 다른 지역에서도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좀 더 준비하겠다는 열의를 각 지부에서 갖게 했다. 예년의 부산 동구 지부의 예배당 보다는 적은 곳 이긴 했지만, 각 곳에 흩어졌던 형제 자매들은 사랑을 더욱 느끼게 하는 곳이기도 했다.

남부지방대회의 첫 모임은 25일 오후 6시부터 지방부에서 내려간 많은 역원들의 반가움속에 이 재수 형제의 사회로 열렸다. 서울과 비슷한 수의 백여명이 모였던 신권회는 “세상은 즐겨 일하는 일군 필요함”을 찬송 했으며 「계명을 지키자」는 쎄들러 장로, 「신권의 필요성」을 스펜서 장로, 「신

권의 중요성」을 배 영천 형제의 말씀으로 들었으며, 이어서 지 달영 형제의 말씀이 있었다.

「기능 경의 하나님 신권으로 이끄시고 풀무에 영 넣으사 당신답게 합소서」라고 신권의 의로운 행사를 다짐했던 신권 소유자들은 7시 30분부터 있을 남부지역 로드 쇼를 기다렸다. 신권회와 매를 같이 해서 열린 상호부조회 역원회 역시 7시에 마쳤다. 지방대회를 이용했던 대구, 부산, 부산동구지부가 참석한 로드·쇼는 멀리 떨어져 있던 형제애를 더 해 주었다.

둘째날인 26일 오전 8시 40분에 소집된 전체역원회는 서울에서와 같은 모임이었다.

이어서 2백여 대구중앙지부를 중심한 남부지역의 회원들은 차 중환 형제님의 사회로 10시 15분부터 열린 제1총회에 참석하였다. 역시 이 호남, 차 중환 형제님에 의해서 선교부, 지방부 행사가 있었으며 부산의 하퍼 장로, 28일 임기를 마치고 떠나게 되는 커슬리 장로, 한국땅을 밟은 후 첫번 지방대회를 맞는 킹 장로에 이

어, 이 재수 형제님과 팔머 자매님의 말씀이 있었고, 선교부 일반 서기 합킨슨 장로와 광주 지부장으로서 부름받은 박 병규 형제의 간증과 이 호남 형제의 말씀이 있었다. 제1총회 후 각 곳의 형제 자매들은 대구지부가 제공하는 떡국을 들면서 여러 지역에서 있었던 의견을 교환했으며 그 어느 때 보다는 형제애를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세번째 모임인 제2총회는 오후 2시부터 지 영달 형제에 의해서 사회되었으며 부산 지부의 베이스 장로, 전주지역의 칼슨 장로, 미군 대구 역원 켈슨 형제, 파랑새 평화 봉사단원으로 경북대학에서 영어를 교수하는 파랙 형제, 대전의 임 중권 형제의 간증과 지방부장님과 선교부장님의 말씀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형제애를 다짐했던 남부지역 지방대회는 서울의 역원을 필두로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을 안은채 이웃에게 선교사가 되는 회원 배가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서로 손을 저었다.

Christ-mas 광고 안내

1. Christ-mas 칸타타

(출연 : 지방부, 선교사 합창단)

일시 : 1967년 12월 23일 오후 6시

장소 : 선교본부 대강당

2. 인천지역 학교 초청 성탄모임

(출연 : 선교사합창단, 각학교)

일시 : 1967년 12월 22일 오후 7시

장소 : 인천신흥국민학교

1968년도 도전 목표

성도 혹은 성도라 불리울 수 있는 자로서
연약한 자와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연약
한 자의 능력에도 감당해 낼 수 있는 약
속이 따르는 원칙으로 주는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89장 3절)

편집자주 :

여기에 공개하는 글은 「모든 회원은 선교사」라고 말씀하신
대관장님의 말씀과 그것을 바탕으로 1968년도를 「회원배가
운동의 해」로 정하고 회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배 일문 선교
부장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회원은 선교사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 : 15)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의 날이어늘.....”(열왕기하 7 : 9)

“.....진실로 주의 음성은 만민에게 미치며 한 사람이라도 피할 자가 없나니, 경고하는 음성은 말세에 내가 택한 내 제자의 입으로 온 백성에게 미치리라.”(교리와 성약 1:2~4)

만약에 당신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면 당신이 가족과 함께 그 부귀를 나누어 누리시지 않겠습니까?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의 충실한 회원은 영생을 갖고 있고 진실로 승영에 대한 희망이 풍성한 세상에서 사는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암처럼 치명적인 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새 발견에 관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당신은 그러한 병으로 고통을 받고있는 당신의 친구와 함께 그러한 지식의 혜택을 나누어 누리므로써 그 친구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관심하게 옆에 서서 그 친구가 고통받도록 내버려두시겠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마가복음 2 : 17)

만약 당신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교회가 가져다 주는 축복을 이야기 하지 않고 복음에 관하여 무식한 상태 대로 버려두시겠습니까? 당신은 자녀들이 교회의 모임에서 떠나있게 하시겠습니까?

“또 시온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때 회개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68 : 25)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임명한 직분에 따라 서로 가르치라. 모든 자로 하여금 자기 형제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게 하며 내 앞에서 덕과 신성을 쌓게하라.”(교리와 성약 38 : 23~24)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대관장

데이비드 오 · 맥케이

친애하는 한국성도에게

지난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마닐라에서 열린 선교부장 회의에서 한국선교부의 선교사업 관리자로 교회의 대관장님으로부터 임명된 12사도회의 골든 비헝크리 사도와 70인 제1정원회의 메리온 디·헝크스 장로는 교회에서 침례받는 개종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1968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창도의 해로 삼도록 한국의 말일성도들에게 하나의 도전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주님이 임명하신 종들에게서 받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선교부장단은 이제 지방부와 지부의 전 신권지도자와 주일학교, 상향회, 그리고 상호부조회등 모든 조직의 지도회원들에게 “저들이 온 힘을 다하여 낫질을 하며” 1968년에 있어서 선교사업에 진지한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음과 같은 도전 목표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1. 교회의 회원 각자는 자기의 가족이나 친구중에서 신중하게 택한 개종자를 최소한도 한사람 씩 침례장으로 인도할 책임을 가짐.
2. 신권회의 각 그룹과 각 보조 조직은 그 충실한 회원 수 즉 참가 회원수를 1968년 동안에 배로 늘임.

만약 여러분이 이중적인 이러한 도전 목표를 간직하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가르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될 것이며 여러분은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부장단을 대표하여
여러분의 충실한

한국 선교부장
스펜서 제이 팔머

서부지부 헌당식 거행



사진 : 헌당된 서부지부 예배당 전경

지난 11월 12일 오후 6시부터 서부지부에서는 대관장님의 명을 받은 배일문 한국 선교부장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봉납하는 헌당식이 있었다. 1958년 8월 30일 당시의 중앙지부로부터(현재의 삼척지부) 분가하기에 이른 서부지부는 이로써 10년 만에 하나님께 헌당된 예배당을 갖게 된 것이다.

서울지역 200여 성도들의 참석리에 이루어진 헌당식에서 서부지부 회원들은 지부로서 갖추어야 될 의식을 전부 행한 동부지부에 이은 두번째의 축복받은 지부로서의 감사를 뜻과 지부의 합창으로 장식했었다.

그 간 서부지부는 충정로 3가 47번지에서 예배를 보아 오다가 1961년 10월 30일에 현 위치로 이사해던 것이며 그 동안 누차에 걸쳐서 채광이 좋지않은 예배당을 개조하기에 이르렀었다. 노동 선교사와 회원들과 인부들의 정성 어린 봉사속에 이루어진 등 건물은 「성도들의 숨은 정성과 즐기찬 노력의 결실이며 이 땅위에 회복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유와 참된 진리를 믿을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자부하고 있었다.

900평의 대지 위에 250여평의 예배당은 4개의 부속실을 갖고 있다.

편집자 주 : 여기에 선교부장님의 헌당기도 전문을 실읍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 말일에 당신의 성도로써 사랑과 수고로 당신께 드리며 당신의 열납하심을 기원하는 저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 수고와 봉사로 단장되고, 증축되고, 개조된 이 건물에 모여서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며, 마음의 느낌을 들어주시며, 저희 영육의 소망을 들어 주시옵소서.

당신께 사랑과 수고를 바친 성도가 이 자리에 함께 하였으며, 하나님의 왕국을 일으켜 세우려고 수고한 자가 이 자리에 함께 하였나이다.

아버지시여 ! 이 집을 주심을 감사하오며 이 백성들의 마음에 임하시라 저희들이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바를 느끼게 하사 당신의 빛이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나이다. 그리하여 진리와 또한 복음의 영은 이 땅에 씨 뿌려졌으며 이 집이야말로 말로 말세에 당신의 진리와 빛이 크게 퍼지고 있음을 전하는 상징이 되어 섰나이다.

아버지시여 이제 이 집을 받아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소박한 이 집을 신앙의 집이 되게 하시고, 금식과 기도의 집이 되게 하시며, 감사를 전하는 집이 되게 하시며, 사랑과 우의의 집이 되게 하시고, 당신께 사랑과 헌신을

바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이 시기에 당신의 성도들이 거듭 헌신할 수 있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집에 임하는 자마다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영원한 기도와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 저희가 이 집에 임할 때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성찬을 나눌 때 축복하여 주셔서 이 집이 바로 우리가 속하여 일하고 있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의 영이 거하는 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저희를 축복하시고, 저희의 수고를 아끼사 이 집을 천재지변이나 유혈의 전쟁의 파멸에서 지켜주시고, 참된 신앙의 증거로 존속하게 하시어 이를 바라보는 자마다 참으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오 그의 백성들은 주를 섬김에 한 가족같이 단합하였도다라고 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시여 ! 이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축복을 나누면서 저희는 이 나라의 정사를 맡은 지도자에게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간구하옵건대 위대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대한민국과 이 나라의 박정희 대통령과 국민이 선택하여 이 나라의 운명을 걸머지게 된 모든 지도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이 나라의 정부와 국민을 축복하사 이 교회 곧 주님의 교회가 보호받게 하시며, 자유

→
 헌당기도에 앞서 「회원
 들 각자가 야담함을 느
 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 건물을 다듬자」고 강
 조하는 선교부장님. 이
 날의 말씀은 한국어였
 다.



←
 「8개 성상만에 헌
 당된 건물을 갖는 기
 쁨을 잊지 말자」고
 얘기하는 서부지부
 장 이 태문 형제

↓
 헌당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200여 서
 울 지역의 성도들이
 찬양대의 찬양에 귀
 를 기울이고 있다.



의 처소가 되게 하시며, 대화와 지식의 전당이 되게 하시며, 협의와 우의의 집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집이 인간을 당신의 진리로 인도하는 임무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시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역원을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지부의 지도자를 축복하여 주시며, 이 나라와 이 지부에서 당신의 소명을 다하려하는 자 모두를 축복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의 신앙이 돈독하게 되게 하시며, 헌신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어 저희가 주를 사랑하고 독생자가 하신 것같이 모두를 바치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지난바 모두를 다하여 교회의 역원을 지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거룩한 건물에서 예배하기에 합당한 말일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옵는 아버지시여! 특별히 이 집이 지식의 요람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 집에 임하는 자 모두에게 양식과 향상을 전하는 집이 되도록 축복하사 어린 아이가 들어와 신앙을 깨우치고, 연소한 자가 들어와 헌신과 우의와 기쁨을 배우게 하시며 이곳에 들어오는 자가 모두 각별한 평안과 거룩함과 경건을 느껴 참으로 이 집이 당신의 집인줄 알고 거룩하지 않은 것, 불결한 것을 이 집에서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구든지 이곳에 임하는 자는 경건을 갖추고 모자를 벗고 당신께 절하게 하시며 경박함과 소란한 웃음

이 이집에서 일지 않게 하시옵서. 다만 거룩한 미소와 행복의 기쁨이 일어 이 집에 백성을 모으는 관건이 되게 합소서. 아버지시여 이 곳에 임하는 구도자와 비회원이 한결같이 당신의 영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라 말하게 하시며, 이곳에 모인 말일 성도들로부터 진리의 능력을 느낄 수 있도록 다 라고하게 하옵소서.

청하옵건대 우리의 선지자, 선전자가 되시고, 계시자가 되시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을 축복하옵시고, 세상 만방에 전하시는 그의 끝없는 뜻을 아시옵소서. 참으로 그는 말세에 모든 교회에 축복을 전하였고 저희는 이 기쁨을 누릴 특권을 얻었나이다.

간구하옵기는 이 지부의 모든 회원이 간증을 얻어 거듭 침수되고 영의 권세와 능력으로 확고히 되어 의로움과 거룩함이 그 위에 임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간구하옵나니 지방부장단을 돌보아 주시고 선교부장단을 돌보아 주시며 저희 모든 사람을 살피주셔서 저희가 누리는 특권을 감사하게 하시고 이 건물을 바라보며 아버지께 참된 감사로 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 간절히 간구하는 중에 감사함으로 이 집을 받아 당신께 드리나이다.

청하옵건대 이 집을 받아 주시고 저희가 의로운 중에 봉사함으로 받기에 합당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나이다. 아멘.



전주지역 첫 집회를 갖다

지난 10월 17일 한국의 14 번째의 지역으로 탄생된 전주에서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하며 내려갔던 전주 지역의 선교사들은 10월 22일 그 곳에서의 첫 주일학교 모임을 가졌다.

그 곳의 선교사들은 도착한 다음 날 시청에 선교사 거주 등록을 마쳤으며 다음날 노송동 553번지 4호인 선교사 집으로 이사를 했다. 10월 22일 아침 일찍 전주에 있는 산에 올라 전주 지역 헌납식을 가진 선교사와 홍형제

는 소리높여 주일의 감사를 찬송했으며, 기도와 간증을 돌리다가며 하였다. 헌납식 후 선교사 집에서는 박 주인 형제와 신 영자 자매를 모시고 이 곳에서의 첫 주일 학교 모임을 10시부터 가졌다. 비록 교사와 듣는 사람이 일곱에 불과한 수 였지만, 자라나는 겨자 씨앗을 다집했던 이들은 말씀을 따라 록키 산을 넘었던 물몬 선조들의 간증을 새기어 가졌다.

전주의 선교사들은 그곳에 이사와



사진 : 전주지역의 회원들 좌로부터 허준, 홍범식, 홍미련, 오경자, 각스장로, 이인자, 신영자, 박주인, 닐슨장로

있는 회원을 찾아 내기위해서 주소 하나만을 갖고 이사를 거듭한 지역을 찾아 헤매었으며 그들을 찾을 때 그네들은 함께 부들켜 안고 눈물을 글성이며 반가워 했다. 그러기를 거듭한 두번째 집회인 11월 22일에는 신태인에 거주하는 허준, 박주인, 홍범식 형제와 신영자, 이인자, 오정자자매들이 모여 예배를 보았으며 4번째 모임인 11월 12일부터는 수리를 완료한 홍범식 형제대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지난 11월 14일에는 전북대학에서 물문 정신의 강연차 내려오신 선교부장님을 모시고 어떻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알게 되었는가를 서로 이야기 했으며 다음날인 15일 약 400명이 모였던 전북대학교 대강당에서의 강연은 그곳이 교육 도시요, 종교 도시임을 얘기 해 주는듯 많은 지식 수준의 청중들(20명의 교수, 5명의 목사)의 관심속에 진행되었다. 한국 기독교의 중요한 세 구름에 대한 연구 검토와 장로교 목사가 쓴 “우리는 물문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소책자를 인용했던 이날의 강연은 홍범식 형제가 통역했었으며 그 곳에 모인 많은 청중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편집자 주 : 다음 소개하는 글은 전주지역 관리 선교사로 있는 칼슨 장로님의 글입니다.

편집자 귀하

저는 지난 2년동안 한국의 4개 주요도시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을 다행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일해온 그 도시에는 함께 일하고 함께 즐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한분 한분을 통해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저는 삶과 사랑의 새로운 뜻을 배웠습니다. 저는 저를 가정으로 불러주시고 또 자기들의 생활안으로 불러주셨던 훌륭한 한국 백성들의 고마움을 갚을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양 음식 보다도 더 아쉽게 그리워 한 것은 저의 아버지와 의 긴밀한 유대였습니다.

훌륭하신 여러 한국인이 저를 불러주셨고, 그분들의 지혜를 나누어 주셨으며, 저는 이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에도 저의 아버님과 의 긴밀한 유대는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렇게 떨어져 와서 수행하는 동안 저를 뒷받침 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아버님께 감사드립니다.

훌륭하신 성도들, 그리고 성실한 구도자로 하여 저는 커다란 영적인 만족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한국 성도들로 인하여 어떠한 여건하에서도 감히 주의 뜻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45페이지 하단으로〉

첫 침례식을 행한 두 지역

—대전지역, 영등포지역—

편집자주 : 아래에 소개하는 두 지역은 새로운 지역으로 선택된 후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회원을 탄생시킨 지역입니다.

대전지역

“This is the place.”라며 솔트레이크 계곡을 가리켰던 부리감 영 대관장의 말씀으로 의기를 다짐했던 대전지역의 선교사들은 지난 5월 22일

도착 후 약 5개월만인 10월 28일 첫 침례식을 대전지에 있는 목욕탕을 전세내어 가졌다.

지난 5월 28일 9시 명인여관에서 4명의 선교사와 양 해윤, 남 기달, 유 석술 형제의 7명이 대전지역의 첫 예배를 본 후, 29일 하루종일 금식으로서 축복을 간구했던 이들 선교사들은 동이 틀 무렵 보문산 위에서 대전 지역의 헌납식을 갖고서 곧 이 지



역의 선교사업을 시작했던 것이다.

이들은 대전의 주요 인사(관청, 언론기관, 학교)들을 순방하면서 말일 성도의 도착과 교회를 소개하였으며 그 후 양 해운 형제대에서 집회를 가져 왔었다.

역시 가족 중심의 선교를 해왔던 대전지역의 선교는 이번에 침례받은 형제 자매들이 대부분 기혼자였던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처음 이 지역을 선교했던 분들은 배 리돈, 송 정섭과 칼슨, 파커 장로들이었으며 그 후 파커 장로를 대신하여 화이트 장로가 선교해 왔었다. 지역 책임자로 있는 배 리돈 장로는 이 지역의 특성을 회원은 물론 구도자들까지도 우리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봉사하는 간증이라고 말했다. 그간 집회 장소의 협소와 분반시 공과 교사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대전지역은 예배할 수 있는 건물을 위해 거의 모금을 끝냈으며 회원들의 노력은 곧 훌륭한 교사를 만들기에 족하리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침례받은 회원들은 다음과 같다.

임 정본 37세
김 갑중 34세
이 영구 34세
유 재익 33세
명 정희 31세
고 병천 24세

영등포지역

지난 6월 26일 선교부로부터의 출장 선교를 끝내고 이사하기에 이르렀던 영등포지역은 11월 4일 오후 3시에 있었던 서울지역 침례식에서 첫번째 회원을 내었다. 넬슨, 스티븐스 장로와 황 충열, 스노우 장로에 의해서 개척되고 넬슨, 위건스 장로와 황 충열, 에반스 장로에 의해 침례를 받은 영등포지역의 회원들은 그간 집회소를 제공하였던 김 명웅 형제의 가족인 김 병호(김형제부친), 배 매향(김형제 모친), 김 명준(동생) 가족과 성 정민 형제였다. 첫 침례식을 갖게 되므로 앞으로 계속해서 회원이 나오게 될 이 지역은, 집회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 10 만원을 준비해 놓고 있으며 집회소가 결정되기 까지의 집회는 선교사 집에서 갖게 되었다.

그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던 영등포지역은 서울의 다른 지부나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독립되어 있는 인상마저 주었으나 이번 기회로 많은 지부와 접촉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즐거워들 했다.

11월초부터는 주일학교내에 유년반을 만들게 되었음을 자랑스러워 하던 선교사들과 봉사와 이삭줍기반 공과 교사 황 인철 형제는 다른 어느 지부보다도 클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하며 쌓여진 축복을 감사했다.

광주 지부장단 조직

지난 11월 3일 지부로 승격된 광주지부는 지부장단과 지부 보조 조직의 조직을 끝내고 곧 상호 향상회 집회 준비를 위한 젊은이들의 움직임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의 중요 도시에 지부를 두자던 회원들의 여망으로 그곳에 선교사가 도착된지 14개월만에 이루어진 지부로의 승격은 호남지역의 젊은이들의 열을 반영한 것이었다.

교육 문화 도시인 광주는 전라남도의 도청 소재지로서 인구 32만의 215 km²의 도시이며, 수 십년 전에 장로교가 복음을 전도하여 장로교의 본산을 이루고있는 곳으로 천주교에서도 대주교를 두고있는 곳이다.

이 곳에 인연을 갖게 된 것은 동부지부 출신의 유 청열 형제와 박 병규 형제가 몇몇 구도자들과 함께 예배를 보던 것에 비롯하며, 그 후 1966년 8월 24일 광주지역의 개척 선교사로서 벤슨

힐 장로를 책임자로 서원 장로, 사뮤엘류, 장로, 마크이 피터슨 장로등이 출발한 후 그 해 9월 첫주 부터 주일학교 모임을 가졌으며, 지부장으로 부름받은 박 형제등의 “우리는 선교사”라고 간증했던 굳은 믿음이 쉽게 지부로 승격할 수 있게 한 기틀이 되었다.

11월 현재로 4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광주지부의 평균 출석율은 40명으로서 거의 모든 회원이 중년층인 것이 특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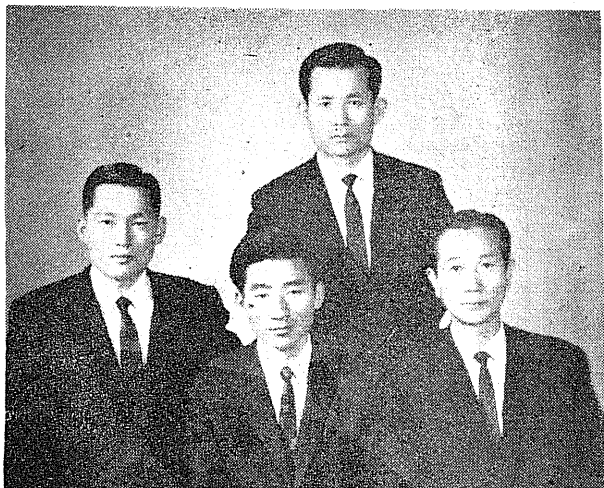


사진 : 좌로부터 임 재욱(서기) 박 병규(지부장)
정 현기(제 1보좌) 서 익주(제 2보좌)



성탄 이야기

W. 크레온 스카우슨 작

첫번 성탄절보다 인간의 마음을 더 울림이게 만드는 것은 결코 없었지만, 그러나 이상스럽게도 이 첫번 성탄절에 관한 역사를 바탕으로 완전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었다. 성경 기록에 묻혀 망각되어가는 부분이 여럿이나 있다. 성탄절을 즈음하여 대개의 사람들이 그대로 간파하여 버리는 것들이다. 이 글을 실리는 목적은 성탄절에 담겨진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적어 상기하여 보자는데 있다.

>역사적인 배경<

우리들이 꼭 상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가 탄생한 곳은 피정복 국가였다는 사실이다. 그가 태어나기 전까지 60년 이상이나 로마 군대전차의 육중한 쇠바퀴가 예루살렘의 구석구석을 울리고 있었으며 폼페이 장군은 시온산에 로마의 독수리상을 세웠던 것이다.

로마의 정복은 이에 끄치지 않고 계속되었으며, 결국 아우구스투스 가 이사는 잔혹하고 교활한 성격의 아랍인을 시켜 유대인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의 이름이 바로 헤롯, 헤롯 대왕이었다.

헤롯은 유대교로 개종하는듯 했다. 거대한 신전 건축을 서두르게 시작했다. 유대나라 공주인 마리아메와 결혼하여⁽¹⁾ 두 자식까지 낳았으나 일찍 죽어 유대의 통치자가 되지 못하였다. 그들의 아버지였던 헤롯은 왕위를 빼앗기 위하여 살인을 자행하였으며, 민중의 마리아메와 두 유대인의 피가 섞인 자식들을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것을 보자, 그는 세 사람을 죽이도록 명하였다⁽²⁾. 이 사건을 비롯한 헤롯의 죄과는 민중의 극심한 경

멸의 대상이 되기에 족하였다⁽³⁾.

>성탄의 이야기는 신전에서<

로마 건국 752년⁽⁴⁾ 헤롯이 60세가 넘었을 때 새 신전의 중앙부가 실제로 완공되었고,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는 이곳에서 비롯된다.

하루는 사가랴라 하는⁽⁵⁾ 늙은 레위인 제사장 하나가 제단에서 의식을 집행하려고 신전엘 들어 갔다. 청중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 사가랴는 성역이라고 일컬어 지던 제단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사가랴는 바로 앞에 있는 성스런 장막을 대하고 서있었는데 그 장막뒤에는 지성소가 놓여있었다. 장막 바로 앞은 황금색 제단이고 제단에는 전 날밤에 향을 태운 꼬투러기가 남아 있었다. 사가랴는 그의 바른 쪽에 젓상의 떡과, 왼편에 눈부시도록 닭아논 촛대⁽⁶⁾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1) 요세푸스, 유대인의 전쟁 1권 3장

(2) 후에트릭 화다, 그리스도의 생애 51 페이지

(3) 요세푸스, 유대인의 전쟁 14권 9장 4

(4) 제임스 이 탈메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탄생을 753년으로 보고있다. 고로 성탄의 이야기는 1년전인 752년에 시작된다.

(5) 눅 1:5

(6) 눅 1:11

사가라는 이날도 역시 어려움을 두고 마음의 짐이 되어왔던 염원을 품고 이곳에 임한 것이다. 그는 아들 얻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이미 생산할 수 없는 연령에 이른지도 오래되었으나 그는 계속해서 버릇처럼 주께 자기의 소망을 요청했다. 그가 제단 향초에 임할 때의 마음은 소망의 극에 달하게 되었다.

홀연 사가라는 행동을 멈추었다. 지정소를 밝힌 은은한 불빛이 어느 영광스러운 존재의 출현으로 인하여 눈부신 것으로 변모하였고 순간 사가라는 거의 장님이 된것 같았다. 거기 천사 한분이 제단 우편에 강한 하늘 빛에 둘러싸인채⁽⁷⁾서 계셨다. 히브리 역사 400년이상을 통해서 처음으로 유대 백성의 제사에게 계시가 전해진 것이다.

＞성탄 소식을 전한 천사의 첫 시현＜

공포에 쌓인 사가라가 경건하게 기도의 자세를 갖추기 시작하자 천사는,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말하였다.

겸허한 레위 제사장은 참으로 그의 귀를 못믿어 하였고 천사는 말을 계속해 갔다.

“.....저가 주앞에 큰 자가 되며...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⁸⁾

이러한 처사는 사가라로서는 감당치 못 할 것이었다. 도대체 엘리사벳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던 말인가? 불가능한 일이다. 그녀는 이미 너무 늙지 않았는가. 이토록 마음에 의심을 품고 사가라는 천사에게 물었다.

“내가 이것을 어찌 알리요?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⁹⁾

사가라를 내려다 보는 눈은 영원처럼 심오했다. 사가라가 하나님의 권세를 의심했는가? 삼손의 모친, 사무엘의 모친, 이사의 모친이 모두 특별한 하늘 축복으로 아들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사가라가 잊었던 말인가? 아니면 천사의 권세를 불신 한단 말인가?

극히 엄숙한 음성으로 천사는 사가라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일의 되는 날까지 네가 병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 함이라!”⁽¹¹⁾ 곧 천사는 사라졌다.

사가라는 거의 혼비 백산했으나 자기의 소임을 다 하고자 분항을 올렸다. 향이 마치 연한 구름처럼 장막위

(7) 클라크 제이 루우벤 내가 주님의 일에 관 계해야 함을 모르는가? 70 페이지 컷과 설명을 참조

(8) 눅 1:13, 14

(9) 눅 1:18

(11) 눅 1:20

로 올라갈 때, 이 레위 제사장은 여러 사람 앞으로 걸어나갔다. 어찌하여 그는 그토록 오랫동안 머물렀던가? 사가라는 애써 설명하려 하였지만 혀는 굳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결국은 조용한 몸짓으로 자기가 시현을 보았다는 사실을 알렸던 것이다⁽¹²⁾.

▷망각되어 가는 왕이 나신 곳—나사렛<

예루살렘의 북방 백 마일 지점에는 갈릴리 언덕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계곡 하나가 있었다. 그 당시에 이 계곡에는 나사렛이라 부르는 특색이 없는 농가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 고장에 세상에서 가장 이름난 여인 중의 하나가 될 이스라엘의 딸이 살고 있었다. 그네의 이름은 미리암이었다. 오늘 날 우리는 “마리아”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본래의 이름인 히람말에서 옮겨진 것에 불과하다.

미리암이란 이름은 유대인 중에서는 아주 유명한 것이었다⁽¹³⁾. 아마도 이것은 그들의 선지자들이 니파이 민족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의 어머니의 이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는데도 모른다⁽¹⁴⁾.

미리암은 유대의 공주였다. 다윗왕의 직계 후손이었다. 사실 그네는 역시 다윗 왕의 후손에 속한 젊은이와 약혼한 사이였다. 이름은 요셉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특별한 상황속에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두 젊은

상속자가 나사렛이란 보잘 것 없는 촌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은 문제로 삼을 필요는 없었다. 가난과 세계 정복의 야심에 불타는 사람들의 광적인 정치 싸움 때문에 이 다윗 왕의 필연적인 상속자들은 망각과 무명의 상태에서 방임된 나날을 보냈던 것이다.

>성탄 소식을 전한 천사의 둘째 시현<

가브리엘이 사가라에게 나타난지 여섯 달이 지난, 아마도 8월에 그는 나사렛의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다⁽¹⁵⁾.

하늘의 시현이 그 네 앞에 펼쳐지고 있었을 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가라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네는 실로 두려워 떨었다. 하늘 사자의 돌연한 휘황한 빛이 순간적으로 그네를 압도하여 그네가 채 입을 열기도 전에 영광에 가득찬 천사 가브리엘의 기쁜 음성인 그네의 귓전에 떨어진 것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도다.”

마리아는 본능적으로 놀라 뒷걸음질을 하고 있을 즈음에, 천사는 곧 온화한 음성으로 “마리아여 무사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어서 확신과 이해를 불러 일으키

(12) 눅 1:22

(13) 미국 백과사전(1946년도판) 18권 345페이지 “마리아”란

(14) 모사이야 3:8

(15) 눅 1:26



사진 : 천사의 음성을 듣는 마리아

는 엄숙한 말로 그는 자신이 가져온 귀한 소식을 전한 것이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마리아는 도무지 영문을 몰랐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라고 물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에 마리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는데, 이 대답에는 그네의 영

적인 깊이와 개성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었다.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가브리엘이란 누구였나? <

마리아와 사가라가 자신을 가브리엘이라고 밝힌 사자의 정체를 과연 알았는가, 그렇지 못했는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여자 앞에 섰던 이 하늘의 사자는 감동하였음에 틀림없다. 천사는 그녀가 고귀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마리아란 어떤 사람이며, 사명이 무엇인가를 그녀가 태어나기 전 수 백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¹⁶⁾. 또한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자기 후손에 속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

자신을 가브리엘이라고 밝힌 이 하늘의 사자는 바로 선지자 노아였다⁽¹⁷⁾. 마리아가 이 찬란한 모습에 빠져있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위대한 선조의 부활하지 않은 영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가브리엘은 자기의 말을 다 마친 후에 마리아의 연노한 동서인 엘리사벳도 아기를 갖고, 벌써 여섯달이나 되었다고 알려 주었다⁽¹⁸⁾. 그리고는 사라져 버렸다.

혼자 남은 마리아는 천사가 한 말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부모에게도, 깊이 사랑하는 요셉에게 마

져도 숨기고 있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성스러운 사실을 꼭 알려야만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그가 다름아닌 엘리사벳이었다. 그녀는 곧 엘리사벳에게 달려가 만나 불 작정이었다.

마리아가 떠나기 얼마전에— 불과 며칠 전에—하늘의 영광이 그녀를 둘러싸고 마리아를 위한 새로운 삶의 이적이 베풀어졌던 것이다⁽¹⁹⁾.

>예수의 모친 침례 요

한의 모친을 방문하다 <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유대의 골짜기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좋지도 않은 길로 100여 마일이나 여행한다는 것이 수월한 노정은 아니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당도하자 아주머니는 그녀를 반가히 맞아주었다. 나이가 많은 여자는 두 손을 벌려 젊은 여자를 안으며 주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거침없이 외쳤던 것이다. “여자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리고는 겸허한 태도로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라고 말하였다.

엘리사벳이 자기의 비밀을 벌써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마리아는

(16) 니일 11:18 모사야 5:8 엘마 7:10

(17) 교회사 3권 386 페이지

(18) 눅 1:36

(19) 제임스 이 탈메지 그리스도 예수 83~84

페이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20)”라고 대답하였을 뿐이었다.

그런 일이 있는 후로 3개월 동안을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있으면서 엘리사벳의 해산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기를 낳고 보니 천사 가브리엘이 예언한 것 처럼 사내 아이였다.

사가라와 엘리사벳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다. 친척, 이웃,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 즐거워 했으며 전부가 이 때지나 얻은 훌륭한 아기의 이름을 붙이는 의식에 증인이 되었던 것이다.

> 침례 요한 이란 이름을 얻고 성임받음 <

그러나 이런 의식으로 장시간을 끌었으나 의식을 집행하는 제사도 아이의 이름을 결정하지 못했다. 가족의 격한 논쟁에 싸여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엘리사벳은 아이의 이름은 무슨 인이 있어도 요한으로 해야 한다고 우겼다. 이에 분개한 남자 친척들은 제사에게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짓도록 명령하게 되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엘리사벳이 계속 반대하자 최종 결정은 사가라에게 맡기자고 하였다. 말도 못하는 데다 귀도 어두었기 때문에⁽²¹⁾ 몸짓으로 이런 의사를 전달하였다. 사가라는 역시 몸짓으로 서판을 가져오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친

척은 놀라서 말도 못하였다. 그들이 신앙심이 돈독한 레위인은 필시 자기 부친의 이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지으라고 쓸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 벼라간 사가라가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거의 일년 만에 처음으로 혀가 돌아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그는 계속 말하였다. 그리고는 자랑스러이 어린 아들을 들여다보며 예언의 영으로 충만하여 진 사가라는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²²⁾라고 외쳤던 것이다.

같은 날 늦게 사가라의 집에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천사가 이 어린 요한에게 신권을 주어 성임하였다⁽²³⁾. 전에는 이런 과정을 밟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조금 달랐다. 날 때부터 성령으로 가득찬 선택받은 아이가 아닌가. 후에 주님 자신도 그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이가 없다”⁽²⁴⁾.

> 마리아 나사렛으로 돌아감 <

마리아는 나사렛의 자기 집으로 들

(20) 눅 1:46

(21) 눅 1:62

(22) 눅 1:76

(23) 교성 84:28

(24) 눅 7:28

아왔다. 요셉은 몹시도 그대를 기다렸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이 다 모르는 아이를 마리아가 가졌음을 알고 슬픔에 잠기게 되었다. 유대의 율법에서의 약혼이란 결혼과 거의 맞먹는 비중의 뜻을 갖는 것이었으며, 파혼의 죄가는 죽음이었던 것이었다⁽²⁵⁾. 대책은 이혼 증서를 써서 자기의 집으로 돌려 보내는 수 밖에 없었다⁽²⁶⁾. 요셉은 마리아를 나쁘게 생각지 않았으나 별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나만히 끊기로” 결심하였다⁽²⁷⁾.

이와같이 무거운 감정의 억압에도 마리아는 한마디의 변명조차 하려 들지 않았다. 사실 그네는 이 문제에 관한 주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네는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이 요셉과의 파혼을 요구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

어두운 밤 요셉이 희망에 부푼 결혼이란 배가 파선되는 것이라고 꼼꼼히 생각하고 있을 즈음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²⁸⁾.

이러한 계시로 마리아의 성스러운 소명을 아름답고 동정적으로 이해하기에 이르렀으며, 사실 이 때에 요셉

의 마음속에 밀어닥친 기쁨을 누군들 묘사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요셉이 마리아에게 이제는 자기도 그네의 비밀을 나누었노라고 이야기하던 정겨운 장면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인가?

천사가 명한대로 요셉은 마리아와 곧 결혼하였고 가이사의 명으로 세금과 가구 조사를 할 때 요셉과 마리아는 어엿한 남편과 아내로 등록하였다⁽²⁹⁾.

>예수는 언제 탄생하셨는가? <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온 것이 로마 전국 753년 이른 4월이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정확한 날자는 구세주가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지 1830년이 되는 1830년 4월 6일 주님 자신이 확인하여 주시기 전까지는 확실치 않았다⁽³⁰⁾. 그 전까지는 정확한 날자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성서 연구학자들은 적어도 기원후 4세기까지는 12월 25일은 성탄절로 축하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 날로 정해진 것은 단순히 편의상에 의한 때문이었다. 12월 25일은 그때까

(25) 신명기 22:23

(26) 신명기 24:1

(27) 마 1:19

(28) 마 1:20~21

(29) 누 2:5

(30) 교성 20:1

지 로마의 신인 솔의⁽³¹⁾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국경일로 지켜왔었기 때문이다. 구세주가 탄생한 날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확인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본래 베들레헴이 ‘다윗의 성읍’이었던 것으로 생각하면 마리아와 요셉의 조상때부터 내려온 고향인 것이다.

로마 정부는 로마 통치하의 다른 곳에서는 개인의 거주지에 세금을 부가하기 위하여 반드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에서의 유태인은 자기 선조들이 등록하여 놓은 곳에는 돌아와 살 수 있는 관습이 있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돈이 풍부하여 안이한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더구나 마리아의 무거운 몸은 여행의 속도를 느리게 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 근처에 도달한 때는 훨씬 먼 곳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이 유명한 도시로 밀어닥친 훨씬 후 이었다. 예루살렘은 6 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였으나 수도의 불친절한 군중들이 베들레헴의 혼잡에 부채질을 하였다. 이러한 혼잡이 야기된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유월절 축제가 한창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유월절 축제 만으로도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과 같은 인근 지역은 수 많은 군중으로 혼잡하기에 충분하였다.

> 첫번 성탄 전야 <

요셉과 마리아가 이 먼거리 여행의 목적지에 거의 도달하였을 때 그들은 언덕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떼옆을 지나갔다. 그들의 선조인 다윗이 어릴 때 양 떼를 기르던 곳이다. 어머니 루이 들의 이삭을 줌던 곳이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고향이었으며 기슭 하나 하나가 성스러운 역사에 몰두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다윗의 성읍은 그들을 반기지 않았다. 그들이 혼잡한 베들레헴의 인파를 헤쳐 길을 재촉하고 있을 때 요셉은 눈앞에 닥친 걱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도대체 어디에 머문단 말인가? 어디를 가나 “방이 없다”는 뒷자를 맞 보아야만 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상태는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다. 마리아의 중대한 사명을 알고 있는 요셉에게는 자기들이 머물 장소 하나가 변변히 없다는 점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도와줄 사람은 없었을까? 산기의 진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젊은 아기 어머니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자리를 마련하여 줄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러나 그의 간절한 바람은 아랑곳 없이 “방이 없다”는 말을 듣고 돌아서야만 했다.

분노로 몸을 떨던 요셉은 마침내

(31) 미국 백과사전(1946년도판) 제 6권 623 페이지 “크리스마스”란



사진 : 몸들곳이 없어 방황하는 요셉과 마리아

보통 때면 구역질이 나서 견디지 못하였을 장소를 택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마굿간, 진통으로 몸을 떠는 아내를 가축을 위해 지은 마굿간으로 안내한 요셉의 마음은 가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마음의 아픔이랴! 그는 젊은 아내가 되도록 편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보잘 것 없는 것을 모아 자리를 준비하였다. 물론 가까운 이웃의 도움을 받기는 하였을테지만, 무엇으로보다 적당치 않았던 것이었다. 왕이 태어나는

이렇게 누추한 곳이 어울린다는 말인가, 그렇게 태어난 왕이 있었던가?

로마 건국 753년 유대 백성은 이날을 그들 구원의 해로 생각해본 적은 꿈에도 없었다. 오래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날 이 시간을 생각했지 않았다. 하늘 궁정에서는 천국의 천사가 엄숙하게 모여 서서 현세의 망각의 첫 문을 나설 위대한 여호와와 나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역사를 판가름 할 순간이었다. 아담 때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의

성도들이 이제 마약 시작될 위대한 연극을 그토록 긴장하여 기다렸던 것이다.

불과 한 마일 떨어진 도시의 외곽 근처에는 천사들이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들에서 자면서 밤에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이 웅대한 시현을 보도록 택함을 받았다. 시현은 마리아가 아기를 낳자마자 시작되었다. 그러자 목자들은 곧 인간의 장막이 열리며 찬란한 빛의 영광 속에 싸여서 있는 천사들을 보았다. 목자들은 곧 죽을 것만 같아서 무서워 뒷걸음질을 하고 있을 때 천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³²⁾”

천사의 무리가 이상 더 가만이 있지 않았다. 옛날 성도들이 부르던 웅장한 합창이 시작되었다. 목자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천사들의 노래 소리를 들었다⁽³³⁾.

시현이 닫히자 목자들은 곧 읍내로 들어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기 시작하였다. 아마도 짐승 기쁨으로 만든 등불의 깜빡이는 불빛이 그들을 한 밤의 마굿간으

로 인도하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마굿간 주위에 몰려보니 정말 그곳에는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운 아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그들을 강력한 힘으로 감동케 할 장면은 하나도 없었다. 갈릴리 농부 한 사람과 방금 태어난 아기와 함께 있는 그의 처 뿐이었다. 그들 주위에 찬연한 광선의 무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아기 천사들이 모인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전에 나타났던 천사들의 영광의 빛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목자들은 경배와 경외하는 태도로 차고 있는 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호와가 이제 육신을 입으신 것이었다.

>미지의 왕<

마굿간에서 이런 광경을 목도한 목자들은 재빨리 달려와 친구와 이웃을 깨었다. 모든 사람에게 한 밤에 보았던 영광의 시현과 이 새로 탄생한 아기에 관하여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별로 감동되지 않았다. 성경에서는 단순히 “기이히 여기되”⁽³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다고 목자들의 열정이 그대로 식어 없어지지 않는 않았다. 그들은 “듣고 본

(32) 눅 2:10~12

(33) 눅 2:14

(34) 눅 2:18



사진 : 마리아가 아기를 낳자마자 시작되는 시현을 보고 있는 목자들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³⁵⁾ 양떼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첫번 성탄절의 이른 아침은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다. 아기가 자고 있을 때 마리아는 행언할 수 없는 기쁨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런면 동방박사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성탄절의 유래를 설명하는 사람들은 꼭해하고 있지만, 예수가 탄생하던 그 날 밤에는 박사가 선물을 드리지 않았다. 사실 그들의 집은 동방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첫번 성탄절의 이른 아침에 그들은 니파이 딴

(35) 눅 2:20



사진 : 목자들이 예수를 찾아 마굿간으로 오다.

죽과 마찬가지로 하늘에 새로운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자기의 고향에서 기뻐하고 있었다⁽³⁶⁾. 예언자들은 이 별은 그들이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표적이었다고 말 씀하고 있다⁽³⁷⁾. 그러므로 박사들은 팔레스티나 땅을 향해 떠날 차비를 차렸던 것이었다. 그들은 이 훌륭한 아기를 보고 경배의 선물을 드리려 하였던 것이다. 아주 길고 먼 여행이 었다.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은 수 주일 혹은 수 개월 걸렸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한편 마리아와 요셉은 새로 태어난 아이를 위하여 명령된 율법상의 절차와 의식에 임할 준비에 바빴다. 아기가 일곱째 되던 날 할례를 받게 되었다. 그들이 지어준 이름은 “여호수아”였다. 이 이름은 유대인에게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지만,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후에 사람들은 그와 같

(36) 니삼 1:21 마 2:2

(37) 헬라만 14:5

은 이름을 소유한 사람과 구별하기 위하여 “나사렛의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오늘날은 “예수”라고 부른다. 그러나 “예수”라는 말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해당하는 희랍어일 뿐이다. 이 이름은 구세주의 사명을 상징한 것이다. 즉 “여호와란 우리의 구원”을 뜻하는 것이다⁽³⁸⁾.

< 예수 성전에 바치다 >

할례를 받은 다음 마리아는 “결례”가 있기까지의 32 일간을 쉬면서 기다렸다. 예수를 성전에 바치기 위하여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까지 6 마일의 여행을 하였다. 장자를 하나 남에게 바쳐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모세 율법중의 하나였다⁽³⁹⁾.

또한 마리아는 희생의 제물로서 어린 양과 비둘기를 바쳐야 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두 마리의 비둘기로도 괜찮았다. 마리아가 두 마리의 비둘기를 바친 것도 의미있는 일이었다⁽⁴⁰⁾.

이 즈음에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경건하며 유식한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 충실한 그는 위대한 메시야를 볼 때 까지 죽지 않으리라라는 약속을 직접 계시로 받았다.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계속하고 있던 어느 날 성령이 갑자기 그에 임하였다. 서둘러 성전으로 가라는 명령이었다. 시므온은 의식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도착하였다.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는 성급히 앞으로

나가서 어머니가 안고 있는 어린 아기를 두 손에 받아 들었다. 깊이 감동한 시므온은 얼굴을 들어 하늘을 올려러보며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데도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라고 말하였다⁽⁴¹⁾.

그런 다음에 시므온은 마리아를 향하여 예언의 영으로, 그네의 아기가 이룩할 위대한 사명에 관하여 말해 주었다. 그는 또한 구세주의 어머니로서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과 같은 괴로움을 참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⁴²⁾. 33년 후 갈보리산의 십자가 밑에서 마리아는 시므온의 비극적인 예언의 진정한 뜻을 알았다.

이 즈음에 성전안에는 예언의 영을 받은 진실하고 경건한 여자가 한 사람 있었다. 이 여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전을 보살피고 48살 먹은 과부였다. 이름은 안나였고, 이 여자 역시 예수가 오래 기다리던 메시야라는 사실을 성령의 증거로 알았던 것이다⁽⁴³⁾. 그 여자는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간증하고 오래 살아 구세주를 볼 수 있는 특전을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의식이 끝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데리고 베들레렘

(38) 화라, 유대인의 전쟁 35 페이지

(39) 출 13:2

(40) 눅 2:24

(41) 눅 2:25~32

(42) 눅 2:35

(43) 눅 2:3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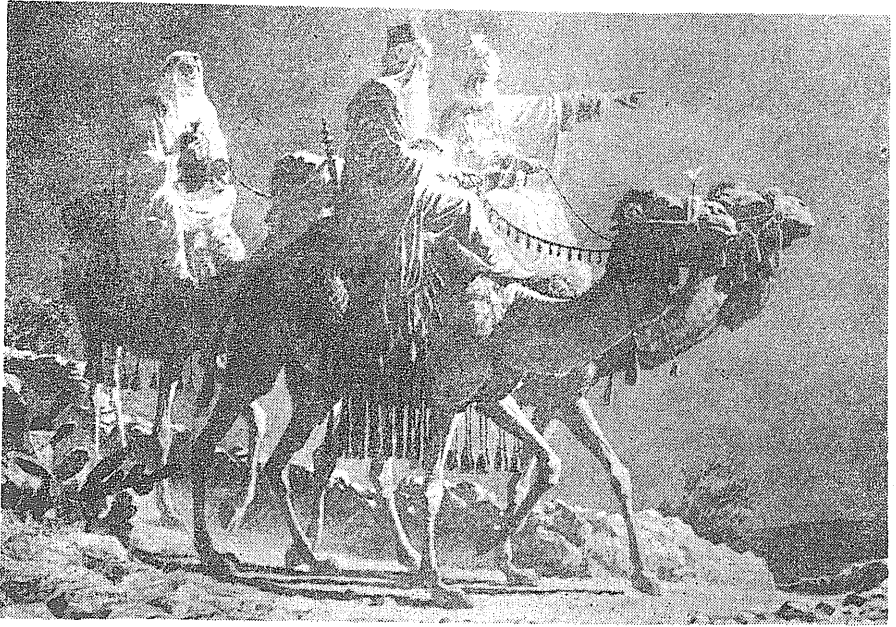


사진 :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찾고 있다.

으로 돌아왔다. 그리하여 마태가 특별히 언급한 바 있는 “집에서” 살게 되었다⁽⁴⁴⁾.

>박사들이 찾아옴<

박사들이 새로 태어난 유대의 왕을 찾아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얼마가 지나서였다. 이 지역의 사태에 감감하고 우직했던 그들은 곧바로 헤롯왕한테로 가서 알아보기로 하였다. 새로운 왕이 탄생한 것 쯤이야 벌써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은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이들이 전한 이러한 말은 백

성들 사이를 급격한 속도로 퍼져가고 있는 이야기를 의심할 여지가 없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목자가 아기 그리스도가 정말로 탄생하셨다고 엄숙하게 증명한 것으로부터 흘러나온 이야기들 말이다⁽⁴⁵⁾.

허둥지둥 헤롯은 제사장들과 만나고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다. 왕이 태어 나리라는 예언이 어디서 언제 나온 것인가를 캐기 시작했다. “다윗의 성읍, 베들레헴”⁽⁴⁶⁾이라고 대답했다. 헤롯은 미친듯이 계획에 착수했다.

(44) 마 2:11 화라, 유대인의 절정 31 페이지

(45) 눅 2:17

(46) 마 2:5~6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다. 자기의 사랑하는 부인과 아이들을 죽이기까지 했다. 미신이나 좋아하는 보잘 것 없는 백성들이 오래 기다리던 메시야니, 성스러운 왕이니 하면서 왕위를 노리는 흉악한 사람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기다니 안될 말이었다. 무서운 증오의 염에 빠진 헤롯은 그 아이를, 그가 누구이거나 간에, 죽이기로 결심했다.

박사들을 “가란이” 불러 자기 나라에서 큰 별을 본 때를 기준하여 정확한 날짜를 알아내게 하였다⁽⁴⁷⁾. 언제라는 것을 알자 헤롯은 어린 아이를 찾거든 자기에게도 알려주어 자신도 새로 탄생한 왕을 경배하게 해달라고 굳은 약속을 하였다. 박사들은 이에 동의하고 길을 떠났다.

길을 재촉하여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달렸다. 가는 중에 그들은 구세주가 탄생하던 날에 고향에서 본 적이 있는 휘황한 별을 다시 한번 보고 기뻐하였다. 그들은 구세주가 있는 곳으로 인도나 되는 것이나 처럼 따라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굿간이 아니었다. 벌써 오래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전보다 좋은 집으로 옮겼던 것이다. 마태는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다⁽⁴⁸⁾ 그런 다음에 보배함을 열어 황금, 유향, 몰약을 선물로 드렸던 것이다.

박사들이 떠날 즈음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헤롯왕에게로 돌아가

지 말고 다른길로 “동방”으로 가라고 일러 주었다. 그들은 그대로 떠났다. 그들은 모르는 곳에서 있다가 모르는 곳으로 돌아간 것이었다. 그들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 이름이 무엇인지 주소가, 어디인지, 어느나라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 없다⁽⁴⁹⁾. 그들에 관하여 이상의 사실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허구에 속한다. 그들에 대하여는 성경 몇 줄에 나타나 있는 것이 전부이다.

>죄없는 자의 학살<

한편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희망이 없음을 알자 노예 군인을 시켜 베들레헴을 샅샅이 뒤져 두 살 아래의 사내아이는 모조리 죽이라고 명하였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처음으로 본 시기를 물어 알았기 때문에 두 살 미만의 아이를 죽이라고 명한 것은 그럴듯한 이야기였다.

명령이 떨어지자 군인들은 죄없고 무력한 사람들에게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무서운 죄를 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가 그 곳에 있을 리 없었다. 박사들이 동방으로 떠나자 마자 곧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고 명하

(47) 마 2:7

(48) 마 2:11

(49) 탈미지, 그리스도 예수 99 페이지



사진 : 이집트로 도피하는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

었던 것이다⁽⁵⁰⁾. 그 곳에서 헤롯의 무시무시한 살육으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듯한 때를 무사히 넘겼다.

헤롯의 이 무서운 “무죄한 자의 죽음”을 명한데 대한 냉혹한 잔혹의 결과는 그의 생을 앗아가기에 이르렀다.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영혼을 판 순간, 몸서리나는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⁵¹⁾.

죽기 며칠전 그는 막심한 후회로 나날을 보냈다. 죽기 5일전 자살을 시도했었다. 임종에 가까운 헤롯은 아주 가까웠던 나라가 자기를 대적하여 일어난 것을 알았다. 채 눈을 감기전에 왕국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⁵²⁾. 채 백년도 못되어 이 괴벽한 성격의

마지막 자손은 지상에서 사라지고 만 것이었다.

마침내 찾아든 죽음은, 헤롯에게는 무서운 고통으로부터 풀리는 반가운 해방이었다. 백성쪽으로 보면 그의 죽음은 하나의 축복이었다. 그들은 즐거운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⁵³⁾.

열대지역의 나일강 뚝을 따라가며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예수와 함께 기다렸다. 전령이 헤롯의 죽음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전에 요셉은 천사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들어 알고 있었다. 그들은 곧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서둘렀다.

(50) 마 2:13

(51) 화라, 유대인의 전쟁 54 페이지

(52) 上同

(53) 上同 55 페이지

요셉과 마리아는 영원히 베들레헴에서 살았으면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적은 무리가 그 지역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살려 가는 그 고장을 헤롯의 잔인한 아들 아킬라오가 다스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로에 지친 그들은 여행을 계속하여 갈릴리 언덕을 지나게 되었다. 드디어 나사렛에 도착한 것이었다. 그 고장에서 살기로 작정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세 가지의 위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⁵⁴⁾. 애굽으로부터 나오리라는 사실⁽⁵⁵⁾.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사렛에서 났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사실이다⁽⁵⁶⁾.

각 예언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때 서로 다른 두 예언과 위배된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하지만, 하늘의 지혜로 이들 세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알게 된다. 구세주의 생애를 통하여 그에 관한 선지자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채로 남아있는 것은 없었다.

성경을 보면 세월이 흐름에 따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적혀있다. 그는 서서히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성역을 베푸는 천사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의 나이 33세에 자기가 인간으로서 태어난 사명의 막바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

다. 최후의 순간에 그는 돌아 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다. 모든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는 모든 것을 감내하였다. 인간과 지상의 모든 생명을 위하여 그는 생명을 바쳤던 것이다. 구세주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다.

>성탄을 맞는 참다운 정신<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성탄절 이야기의 전부라고 하겠다. 이 밖의 모든 것은 인간의 머리가 짜낸 발명에 불과하다. 꿈을 안겨다 주는 즐거운 썬타 크로스는 순전히 인간의 상상력에 의한 것인 동시에 근래에 기원을 둔 행사이다⁽⁵⁷⁾.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땅에서 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정신인 것이다.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하늘 천사들에 둘러싸여 지금까지 이야기한 예수는 오늘도 지상에 돌아올 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울지도 모르는 그 날은 영광에 찬 날일 것이며, 그 날을 우리들 인간은 성탄절의 화평이 천년동안 계속될 지상의 복천년이라 부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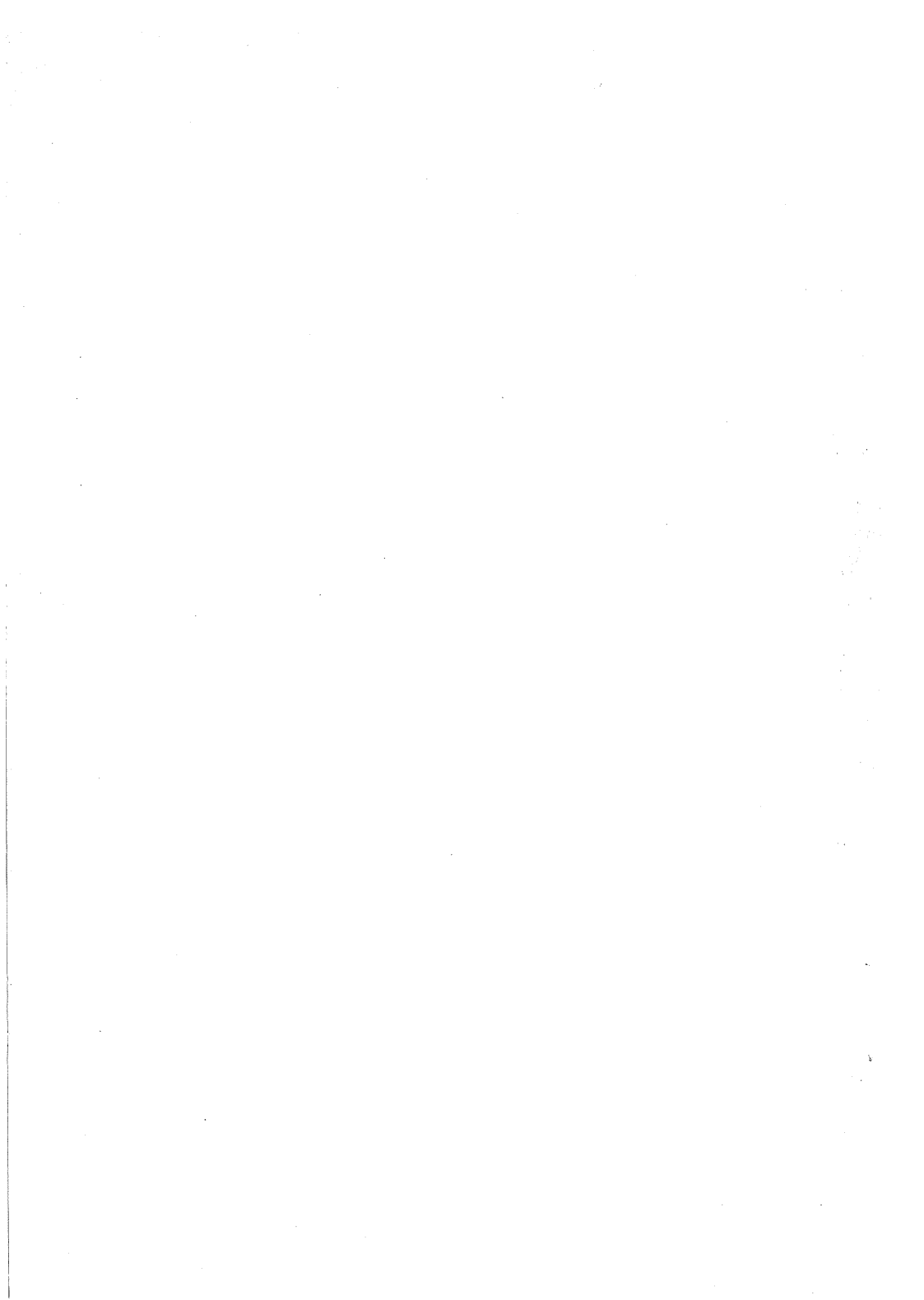
(54) 마가 5:2

(55) 호세아 11:1

(56) 마 2:23

(57) 미국 백과사전(1946년도판) 제 6권 623

페이지 “크마스리스”란





주 이름으로 상징물

작사자 존 니콜슨
작곡가 알렉산더 슈라이너

정 대 관

작사자 존 니콜슨은 1839년 스코트랜드 록스벅사이어, 보스웰 마을에 태어났다. 그가 열 살 때에 에딘버러로 이사했으며 어린 몸으로 가정의 생계를 도와야 했으므로 학교도 다니지 못하였다. 그는 일주당 36센트를 주는 담배 공장에서 일했었고 후에는 페인트공이 되었고 벽지 바르는 기술공이 되었다. 1861년, 올손 프레트가 전해 주는 소책자를 읽고 말일성도가 되었다. 성도가 된 후에는 시간 선교사로서 있는 힘을 다하여 시간을 내어 충실히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였다. 1866년 유타로 이주해왔고 그곳에서 페인트공과 벽지공으로 일했다. 1878년 선교사로서 영국에 가서 일했고 그곳에서 발간되던 밀레니얼 스타지의 편집인이 되었다.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뒤에는 데저렛 뉴스지에서 일했고 후에는 솔트레이크 신전 기록계 주임이 되었다.

존 니콜슨의 특징적인 성격을 들자면 누구에게나 호감을 줄 수 있는 호의에 가득찬 성실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많은 논설을 썼고 훌륭한 연설가였다. 그는 두려움을 모르는 사나이였다. 영국에 있을 때 폭도들이 해칠려고 위협할 때에 “비겁과 잔인성”이라는 연제로 연설하여 폭도들의 마음을 진정시킨 일도 있었다. 그가 구사하는 용어는 풍부하고 감동적이다. “날따르라”와 본 찬송 “주 이름으로 상징물” 두 편의 시가 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는 1919년에 사망했다.

가사가 훌륭해서 에스. 맥버니라는 사람이 지은 곡(영어판 226장)이 한 곡 더 있다.

작곡자 알렉산더 슈라이너는 현 솔트레이크 태버니클 올겐 연주자로서 부친 존 크리스찬 슈라이너와 모친 마가레트 슈베머 슈라이너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양친은 1903년에 개종하였고 회원이 되자마자 그 가정을 예배당으로 합창 연습소로 사용케 하였다. 바로 이것이 슈라이너로 하여금 일찍부터 교회 음악에 귀를 익게 만든 것이라고 본다. 그가 다섯 살때의 크리스마스에 처음으로 청중이 모인 곳에서 연주하였다. 여덟 살에 칠판을 받았고 바로 주일학교, 성찬식 합창대 및 주중에 열리는 성경 연구반의 반주자로 임명되었다. 이 때부터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공부하였다.

20세때 태버니클에서 첫 연주회를 가졌다. 1921년 선교사가 되어 켈리포니아로 갔다. 그의 명성은 당시 이미 확고한 것이었으나 그의 동반자의 경탄과 자랑이 퍼져서 선교 사업을 시작한 첫해에 여덟 군데서나 올겐 연주자의 자리를 제의해 왔었다. 그러나 직업적인 계약을 맺자는 제의도 그의 전도의 열의를 식힐 수 없어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그러나 여러 다른 교파의 새 올겐 헌납식이 있을 때 선교부장의 허락을 얻어 연주해 준 일이 있는데 로스 앤젤스의 안제루스 사원의 대 올겐도 그가 연주하여 헌납식을 가진 일이 있다. 선교사 만년에는 35명

의 선교사가 있는 로스 앤젤스 지방대회를 감리하기도 하였다. 1924년 3월에 해임되었다.

그가 솔트레이크로 돌아오자 태버니클 올겐 연주자로 임명되었다. 1924년 9월 유럽으로 건너가 파리에서 2년간 화성학과 대위법을 헨리 리버트에게 사사하였고 찰스 마리 위도어와 당시 노틀담 사원 올겐 연주자인 루이 비에른에게 올겐 연주를 사사하였다. 그는 자주 여러 다른 형태의 올겐을 연주해 보라고 초청받았기 때문에 올겐의 형태와 구조 기능등을 공부할 기회가 많았다.

1930년에서 39년까지는 솔트레이크 태버니클과 로스 앤젤스 소재 켈리포니아 대학 두 곳에 시간을 내어 일하였고 대학에서 교수회의 위원이 되었다. 또한 그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유대교 회당인 월샤이어 블라드 사원의 음악 관리자이기도 하였다. 또 폭스 영화사를 도와 애란 테너가수 존 맥코맥의 영화 제작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알렉산더 슈라이너는 교회에서 올겐 연주자로 자기의 온 생애를 바친 것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많은 직책에도 맡아 충실히 수행하였다. 열두 살이 되자마자 집사에 임직되었고 파이어닐 스테이크의 케논 와드의 주일학교 감독도 지냈고 할리우드 스테이크의 평의원직도 지냈다. 그는 모든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직책에 임명되어도 다 수행할 수 있게 자신을 훈련시

켜야 된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그에게 부름이 있으면 언제나 그 부름에 응하여 충실히 기쁘게 주를 위하여 그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였다. 그는 자유 교육의 열렬한 신봉자이다. 훌륭한 교육을 받고 교회에 충실할 때에는 성공적인 인생을 보장받는다고 믿고 있고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좋은 일은 되도록 많이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일곱살과 아홉살 난 두 아들은 정확한 운지법으로 타이프 치기를 배웠고 아들은 일곱살 때부터 유년 주일학교 올겐 반주자로 일해 오고 있다.

지휘자에게

작곡가는 이곡을 조용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여 점점 크게 부르다가 “주 기억하게 하시오”에서 고조되

어 힘을 주어 부르고 조용히 끝맺기를 요망하고 있다. 가사야 말로 뛰어나게 시적이며 아름다와 시를 읊으며 명상한다는 것은 주의 만찬의 상징물을 나누는 시간에 말일 성도들에게 요구된 종교적 의무라 할 수 있다. 교회 성찬식의 성찬 찬송으로는 슈라이너 형제가 작곡한 이같은 찬송이 마땅히 불러져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반주자에게

때때로 찬송가에 제시된 제 화성을 다 치지 못해서 듣기에 이가 빠진 듯한 감을 줄 때가 많다. 이 찬송은 내쉴랄, 사프드 등 임시기호가 많으니 특별히 연습하여 성찬의 의의를 더욱 높여 줄 수 있는 성찬 찬송이 되게 해주기 바라 마지 않는다.

〈21페이지의 계속〉

저더러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는 교리와 성약 82편 10 절의 말씀을 들겠습니다.

“나 주는 너희가 내가 한 말을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 줄 수 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치 아니 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

위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매사에 비추어 볼때 정말로 참되다고 생각치 않습니까?

이제 전주를 새로운 선교지역으로 개척함에 있어서 저는 수없이 많은 새로운 달성 목표를 발견하게 되었고 박주인, 홍범식, 허 준 같은 분을 더욱 더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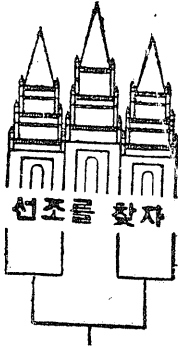
우리가 비록 서울이라던지 그밖의 조직된 교회가 갖고있는 시설 및 기구를 다 갖추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나 이곳 형제님들과 이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은 하늘 아버지와 가깝게 생활하고 있으며 다른 누구보다도 더 가깝게 생활한다고 느껴집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의 원리를 따라 생활하시는 성도들께 대한 저의 사랑을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를 낳ალი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가 모두 그의 계명을 지키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두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복음안에서 형제된

렉스·오·칼슨

<계보란>



계보의 한해를 돌아보며

지방부장단 제 2 보좌

박재암

마지막 12월달이 되면 지난 한해의 거울 앞에 서있는 느낌이 듭니다. 인간은 반드시 도구를 사용하고 문자를 가졌기 때문에 금수와 다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날의 자기 행위를 돌이켜 볼 줄 아는 의식적인 양심의 회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로서 인간인 것이 아니겠읍니까?

어떤 철인은 「당신은 남의 얼굴에 손톱자국을 남기지 않았는가, 남의 음식에 손대지 않았는가. 남들의 평화로운 잠을 깨닫지 않았는가,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사랑했는가, 불의 앞에서 비굴하지 않았는가, 힘없는 자 앞에서 오만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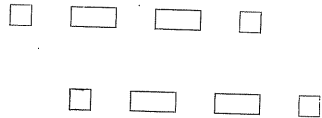
인간의 생활이 늘 그 생존 경쟁속에서만 존재가치와 의식을 느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이 과연 정당하게 쓰여졌나를 생각해야 할 것이고, 돈을 가진 사람은 그 돈이 과연 올바른 것을 위하여 쓰여졌나를 반성해야 할 것이고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지식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남겼는가를, 그리고 말일에 회복된 참 교회의 회원들은 이웃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신앙력을 발휘하였는가를 조용히 돌이켜 보아야 할 시기인줄로 압니다. 12월은 우리들에게 한해가 다 지나가고 있으니 모든 결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12월달을 살아갈 가치있는 사

람이라고 말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묘지만을 위해 서있는 비석만은 아닐 것입니다. 내일을 살려고 즉 내세의 구원에 나아가서 최고의 구원에 참여하고자 어제의 짐을 내려놓으려는 자세가 있기에 역사는 비로서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객관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달력 앞에서 한해를 결산하는 행위와 신앙의 자세를 바로잡는 심각하고 의의깊은 달로써 장식되어야 할 줄 압니다. 빛을 진 것을 झा야야 하는 채무의 달이요, 파오의 때를 벗기는 참회의 달이 되어야 하며 한 해동안 받은 축복을 झा야야 하는 결산의 달이기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고 큰 축복의 꿈이 담겨져 있었던 한해의 계보사업을 돌이켜 보며 신앙적으로 진 부채와 태만에 대한 참회와 받은 여러가지 축복을 감사할 기회를 가져봅니다. 더욱 각 지부에서 수고 하시는 계보위원들과 지방부 계보 위원들의 꾸준한 관심과 그들의 노력에 대하여 감사를 올리며 관심사를 아끼지 않고 후원해주신 선교부장님과 지방 부장님께 감사합니다. 지난해의 우리 계보 위원들의 실적은 크게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중에도 가족 기록서를 완전히 재 도안 수정하여 10,000 장의 부수를 확보했으며 국립 도서관의 수만권의 족보 보관을 발견하여 많은 선조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으며, 계보 지침서의 번역의 교정을

매 월요일과 매 수요일 선교부 계보 도서실에서 지방부 위원들이 모여 책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으며, 각 지부 각지역 모임을 순방하며, 계보사업의 의의를 강조하며, 신도들의 관심을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 선교부장님의 특별지시로 계보철을 도안하여 정리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모든 신앙있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지참하여 신앙 생활에 도울 수 있는 계보사업과 신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보철은 가족기록서, 가계도, 사진 가계도, 신상관계에 해당되는 모든 기록 즉 호적관계기록, 결혼관계기록, 신전의식기록, 개인의 사회적인 기록 즉 상장, 졸업장, 추천장, 기타 법적서류 전부를 철해두고서 여러분의 앞날의 기록증거에 도움을 주고저하는 신앙을 통한 구원에 관계되는 개인적 계보철이 되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해가 다하기 전에 올해의 막바지에 서서 구원의 신앙 생활에 도움이되고 필요한 자료가 될 수있는 모든 기록들을 준비하여 주 신앙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앞날을, 나아가서 내세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지 부 소 식

부산 동구 지부

에경 아기 유아 축복 받다.

지난 9월 2일 동구지부에서는 모든 회원들에게 감명을 주는 의식이 있었다. 즉 지난 남부 지방대회가 있었던 8월 26일에 고고의 소리를 울린 지부장 제1보좌 송재현 장로님의 세째 딸인 에경양의 유아 축복 의식이 있었다. 축복 후 간증 시간에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은 이 의식 집행을 보고, 복음으로 다져진 가정을 부러움다고 했으며 어린 아이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는 말씀들은 참석한 많은 성도들께 감명을 주었다.

동구 지부 월계반 많은 갈채를 받다.

스카우트 활동을 다른 어느 지부보다도 활발히 하고 있는 부산 동구 지부 소년단들은 지난 10월 5일 부산 동아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보이스 카울 창립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그 식 후에 있었던 단원 연례 활동 순서에서 부산 동구 지부 월계반 자매들은 단막극 「춘향전」을 가지

고 찬조 출연하여 멋진 연기를 해 보임으로써 800여 스카우트들은 물론 참석한 내외 귀빈들까지도 아낌없는 박수 갈채를 받는 연기를 해 보였었다.

제3회 지부장배 쟁탈 조직별 배구대회와 제2회 시민을 위한 포크댄스의 밤을 갖다.

지난 10월 21일(토요일) 오후 3시부터 지부 운동장에서는 지부장배 쟁탈 배구대회가 간소한 선수 입장식에 이어 주일학교, 선교사, 소년단, 상향회가 서로의 조직의 명예를 걸고 열전을 버린 끝에 제1회의 우승 팀인 상향회에게 지부장배가 다시 돌아갔으며, 2등엔 선교사팀, 3등엔 소년단이 차지하고, 주일학교는 감투상을 받았다.

그리고 저녁 7시부터 있었던 시민을 위한 포크·댄스의 밤은 20세기 상만이 참석하는 모임이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과(구도자포함) 회원들간의 거리는 좁혀졌으며, 친교 시간에는 모두들 유쾌하고 즐겁게 이웃을 사귄 수 있었다.

이날의 무용 지도는 상향회 무용교사인 손수자 자매가 맡아 주었다.

통도사로 가을 소풍을 가다.

10월 9일 한글날의 공휴일을 맞은 동구 지부는 미군 「하야리아」부대에서 지원한 버스 2대와 트럭 1대로 113명이라는 지부 소풍 이래 가장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 소풍 이래 가장 먼 곳인 양산 통도사로 가을 소풍을 갔었다. 그곳서 가진 보물 찾기와 형제자매들 간의 노래 경연 대회등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아름다운 품속에서 마음껏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했었다. (이 광홍記)

정읍의 물문가족

전북 정읍에서 살고 있는 허 준 형제의 큰 따님 허 영희 자매는 지난 8월 10일 문교부 주최 정읍 지구 국민개창운동 콩쿨대회에서 1등으로 당선되었다. 정읍 성림극장에서 20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일등으로 뽑힌 허 자매가 부른 곡목은 “용사는 바다를 건넜다”였다. 부산지부에 가족이 함께 참석했던 허 형제의 가족은, 정읍으로 이사 후 가족 예배만을 보아 왔었는데, 전주에 지역이 생김으로 이젠 한 달에 한번이라도 같이 예배할 수 있게됨을 기뻐했다.

대구 지부

대구지부의 최 중옥형제는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입사시험에서 삼성물

산에 1등, 상업은행에 2등으로 합격하는 영예를 얻어 복음안의 축복을 감사하고 있다.

동부 지부

농구우승

지난 10월 28일 선교본부 농구 코트에서 있었던 지방부 주최의 서울지역 예선전에서 동부지부는 서부지부를 누르고 승리하였다. 투지력이 강한 서부팀을 맞은 동부는 약간 긴장된 모습을 보였으나, 주장 전 종철 형제등을 비롯한 동부선수들은 전반전을 24:6 후반 16:24 종합 40:30으로 승리로 이끌었다. 이로써 동부지부는 부전승한 청운 지부와 함께 1968년 6월에 개최되는 종합운동경기에 출전하게 되었다. 또한 함께 시상되었던 응원상의 트로피는 3년을 연승 하므로써 동부지부의 독점물이 되었다.

홍형제 결혼하다

지난 10월 30일 오후 3시 동부지부 예배당에서는 동부지부에서 자란 홍무광 형제와 차 미래 자매의 결혼식이 있었다. 배 일문 선교부장님에 의해서 주례된 동 예식은 차 중환 지방부장님이 축사를 해주셨고, 신촌지역의 우 양자, 우 양희 자매가 중창을 해주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결혼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말하던 이들 부부는,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모금 상향회 갔다.

지난 11월 9일 지부 전체 건물에 대한 난방 시설 모금운동의 일환으로 상호향상회는 상호부조회의 협조를 얻어 떡국 파티를 열었다. 지난 9월의 바자 준비에 공이 많았던 자매들에게 조그마한 위로의 선물이 주어졌던 이 모임은 커가는 상호부조회에 성장 촉진제가 되었다. (고 천석 記)

삼 청 지 부

강형제 결혼하다

삼청지부의 강 영철 형제는 지난 11월 12일 신부 윤 혜숙 자매를 맞아 마산 대광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가졌다. 자유수호와 국가선양을 위해 월남에서 싸웠었던 강형제는 펜팔을 통해서 서로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월남에서 분전했던 대가로 고국을 방문했었던 기회에 서로의 부모님을 만나 뵈었었으며, 제대한 다음 달인 지난 10월 약혼을 했었다 한다. 이들의 주례는 번 마산 신장이 맡아 주었다.

한 형제 결혼하다

지난 11월 18일 서울 기독교 사회관에서는 삼청지부의 한 무용 형제와 이 정재 자매의 결혼식이 있었다.

영천에서 군인생활을 하고 있는 한 무용 형제 역시 월남엔 다녀 왔으며 그간 많은 편지를 해 왔었다고.

(박 중식 記)

청 운 지 부

지난 11월 16일에 있었던 지방부 주최 서울지역 로드·쇼에서 청운지부는 2년 연승의 삼청지부로 부터 우승 트로피를 물려 받았다.

서부지부의 「친절 합시다」와, 삼청지부의 「요나 울릉도로 가다」, 동부지부의 「각하님 만세」에 이어 네번째로 출연한 청운지부는 이 근덕 작 김무현 연출의 「우리들의 결혼」을 가지고 나왔다.

보름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했던 로드·쇼는 모든 회원들의 열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객석 중앙을 신랑, 신부가 입장하므로서 막이 열렸던 청운 지부의 로드·쇼는 복음안에서 생활하는 기쁨을 표현해 주었다.

이날의 개인상으로는 남자연기상에 삼청지부의 고 원용 형제, 여자연기상에 동부지부의 김석영 자매가 수상되므로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던 청운 지부의 주연은 신랑에 정수동 형제, 신부에 사 연옥 자매가 맡았었다.

(홍 순모 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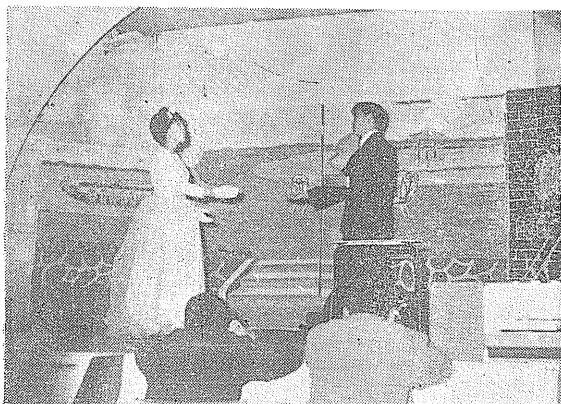


사진 : 열연하는 신랑과 신부

서 부 지 부

지난 10월 28일 귀한 선교사로 한국에서 근무중인 도일부 형제와 한명자 자매와의 결혼식이 이 호남 형제의 주례로 오후 1시부터 서부지부에서 있었다. 국화향기로 가득했던 예배당을 메운 친지들은, 행복으로 웃음짓는 이들에게 많은 꽃을 선사 하였다. (조 규영 記)

지방부장 득녀

지방부장 차 증환 형제는 지난 10월 14일 새벽 인근 병원에서 따님을 보셨다.

선교부장님 부처와 많은 축하객의 방문을 받은 산모 이 순애 자매님은 “이젠 자매뿐 아니라 형제들에게도 땀땀해줬다”면서 낳으면서 부터 물몬인 자녀를 갖았음을 건강한 모습으로 기

뻐했다.

부라운 감독 한국을 방문

지난 10월 22일 관리 감독단의 부라운 형제와 번역 위원회 회장인 화인스 형제가 한국을 방문 하였다. 마닐라에서 있었던 아세아지역 선교부장 쉐미나에 참석했었던 이들은, 한국교회의 발전상에 감명받은 헝크리 사도님의 지시로 방한 했었는데, 방한 중 교회가 가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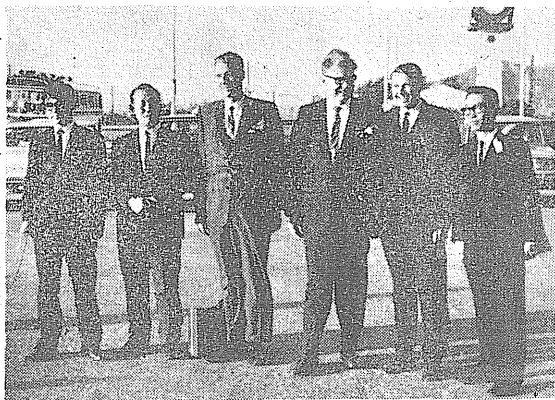


사진 : 좌로부터 세번째가 화인스 형제, 네번째가 부라운 형제

있는 여러 곳의 재산들을 시찰 했었다. 그들을 만나 볼 기회를 가졌던 역원들은 그들의 풍부하게 갖춰진 인품과 건강에 막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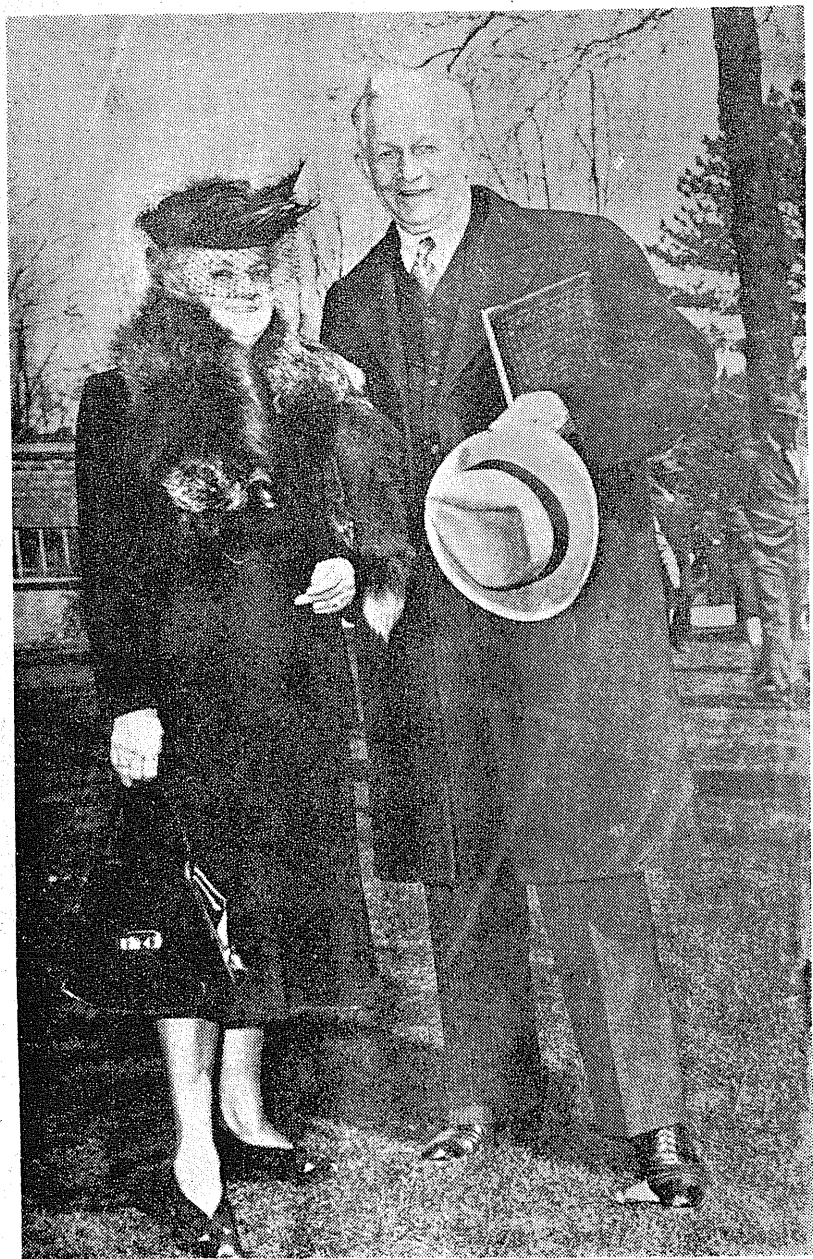


사진 : 1949년 4월 유타주 솔트 레이크 신천 주위에서 포즈를 취하신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과 맥케이 자매님

엠마 레이 리스 맥케이의 추억

제 3 부(11 월호의 계속)

자녀—교회사업—여행

〈그네는 어떻게 자녀를 길렀는가?〉

1916년 삼월 어느 아침 데이비드 오 맥케이는 헝콕에서 일어난 자동차 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고 입원한 일이 있었다. 그날 저녁 아빠 몫으로 준비된 저녁을 큰 아들에게 권했더니 아빠의 회복을 위해 음식을 한다면서 이를 거절했다. 그리고 다음 날엔 엄마를 위해 뭐 할 일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엄마는 오랑캐 꽃을 꺾어 꽃다발을 만들게 했다. 그리하여 아들은 제 손으로 만든 꽃다발을 안고 꽤 먼 길을 걸어 아빠가 계신 병원엘 갔다. 이 소박하고 진실한 마음의 선물은 누워있던 아빠를 기쁘게 했을뿐만 아니라 그 후 여러 해를 두고 흡족한 아빠와 자랑스런 엄마의 마음속에 보배로운 보람으로 남게된 것이다.

레이는 그의 자녀와 함께 지내는 것을 낙으로 알았다. 레이의 아들 하나는 그가 소학교에 다닐 때 학교가 바로 집 앞에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점심을 급히 해치우고 공놀이를 좀 더 즐길 속셈으로 엄마한테 점심을 싸가게 해 달라고 여러 날을 두고 졸라댔다. 샌드위치

를 마련해 주는 일은 실 레이에게도 부담을 더는 일이었으나 이렇게 하여 아들을 하루 종일 밖에 버려두려 하지않고 그네는,

“나는 네가 집에 와서 점심을 먹기 바란다.”고 얘기했다.

“왜요?”

“너를 보고 싶어서. 난 네가 집에 와서 함께 지내는 게 좋다.”

이로써 아들은 그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으며 엄마가 자기를 원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레이는 그가 아이들과 함께 할 때 마다 그로서 아이들이 힘을 얻게 된다고 생각했고 틈있는 대로 되도록이면 아이들과 갖는 시간을 오래하려고 했다. 난로를 장치하기 전에는 종종 식당 난로 옆에서 그네는 아이들에게 노래를 해주었고 아이들을 재우는 자장가가 몇곡씩 끼이게 마련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철자법을 가르치기도 했고 다른 공부도 도왔다. 가족이 모두 연극을 할 때면 그네는 함께 연극에 참여해서 그들에게 대사의 암시를 전해주곤 했다. 연극이 모두 끝나면 칭찬받을 만 할 때엔 칭찬하기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개선이 필요

할 땐 언제든지 이를 일러주었다. “어느 장면에선 전혀 대사가 들리지 않았다”는 식의 충언이었던 것이다.

레이는 또한 많은 시간을 자녀 교육에 할애하여 읽는 법등을 가르쳤고 아이들에게 기초를 가르치려고 “셴본넷” 아기 등의 책자를 구입하였다. 그네는 아이들에게 한 장 씩 소리내어 모두 읽으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해서 책을 끝내게 했다. 이러한 노고의 결과 아이들은 학교에 입학할 때엔 모두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최상의 점수를 받거나 바로 그 밑의 점수를 받거나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도 그네는 어린 아이들에게 모두 피아노를 가르쳤으며 이후로 다른 악기에 손을 댄 아이들 까지도 피아노 랫스만은 철저히 하여 음악 교육 및 감상의 바탕을 쌓을 수 있게 하였다. 때로 그네는 아이들과 함께 피아노에 앉아 함께 치기도 했다. 아들 아이 하나가 바이올린을 했다. 그리하여 레이는 그가 연주 부탁을 받은 곳이면 교회이거나 교회밖이거나 찾아가 반주를 맡아 했고 자녀가 개입된 연주회엔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으며 이와같이 자녀가 이루는 여러 형태의 활동과 성취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던 것이다.

아이들이 혹 이야기 도중 문법을 틀리면 그네는 합당한 예를 들어가면서 이를 시정해 주었으며 이것이 훌륭한 어학의 훈련이 되었던 것이다.

만 아들이 처음 학교에 가던 날 그네는 여러 가지로 심려해야 했다. 육

년 이상을 격리해 왔던 세계에 빠져 들어가 나쁜 욕이나 나쁜 말을 배우지 않게 될까를 염려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수업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자 그네는 물었다.

“애야, 너 오늘 나쁜 말 배우지 않았니?”

“네 배웠습니다 어머니.”

“아! 그랬구나, 그래 뭘 배웠니?”

“글쎄 Are 를 써야할 데에 아이들이 그냥 Is 를 쓰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지금은 유명한 지방검사가 된 아이들이 얼마 전 부모를 방문한 일이 있었다. 쏘파에 누워계신 어머니가 잠드신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곧장 방을 가로질러 아버지께 인사하러 갔다. 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든 아홉의 이 어머니가 머리를 들고 한 마디 전하는 것이었다.

“네 얘기에 문법이 틀렸다.”

“너의 엄마 잠을 깨우는데 틀리는 문법 만한게 다시 없을거다.”

남편 맥케이는 호탕하게 웃었다.

〈그의 자녀는 엄마와 더불어 행복했던 시간을 기억한다.〉

아이들이 여덟 번째 생일을 맞는 때면 레이는 으레 파티를 열어 친구를 불러오게 했고 과자, 아이스크림 그리고 게임도 잘 준비해 주었다.

토요일에는 어린 자녀를 대동하여 종종 쇼핑에 나서곤 했으며 어린 아이들이 재미있어 할 조용한 오락 영화를

그 날의 휘나레로 장식하게 했다. 맥케이가족은 연례로 찾아오는 바둑·베일리 씨커쓰의 장관을 거의 놓치지 않고 관람했다. 이들 현명한 부부는 어린 아이들에게 앞뜰 잔디밭에서 민들레를 뽑아내게 하여 그 작업의 댓가로 씨커쓰에 데려간다는 조건을 내걸곤 했다. 대체로 민들레 열매를 뽑으면 1전을 지불하게 되는데 약속한 날이 이르면 아빠는 밝은 표정이 되어,

“너희들은 지금까지 모은 돈을 그대로 너희가 갖겠니 아니면 씨커쓰에 가겠니?” 이런 식으로 계의하는 거다. 간혹 하나 짚이 돈을 갖겠다고 할법도 한데 이들은 모두 합의하여 온 가족이 씨커쓰 관람에 참여하게 되는 거였다.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 엠마 레이 맥케이는 옥든시 제 4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한 일이 있다. 이 직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결심으로 그네는 어린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끌고 와드에 소속된 자매의 집을 일일히 방문하여 상호부조회 모임에 초대했으며 이러한 그네의 근면은 바로 보상되었다. 회원수는 12명에서 90명으로 증가되었고 마침내 그네는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의 보좌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네는 전차를 타고 여러 와드를 방문했으며, 이 때에도 애기는 데리고 다녔다. 가족의 증가로 이러한 소명이 레이에게 커다란 고난이 되고 있음이 밝혀져 이

직분에서 해임되었다. 그후로 그녀는 옥든시 제 4와드 종교반의 교사로 봉사했고 2~3년동안은 이 조직의 회장으로 일했다. 매 주일 자녀들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해서 그네는 가정 생활에도 지장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네에게 있어 가정과 자녀가 늘 첫째였다.

이 기구와 주일 학교를 통해서 그네의 자녀는 집회 참석의 기회를 얻어



사진 : 영국 리버풀 더럼에 있는 집앞에서의 엠마 레이 맥케이와 로버트 알 맥케이. 이 사진은 맥케이 대관장님이 유럽 선교부를 관리하던 1922년부터 1924년 사이의 사진이다.

바른 태도를 체험으로 배우게 되었다. 그네는 그반 아이들 둘을 시켜 극과 이중창을 준비하게 했는데 이중창의 곡은 “주님은 내 목자”였고 그네의 아들이 알토를 맡게 했다. 그리고 그

네는 자녀중의 누가 집회에서 이야기
기를 맡게되면 실제로 집회에 나가 이
야기하기 전에 집에서 큰 소리로 자
기에게 먼저 들려 줄 것을 늘 종용했
다.

“자 어서 좀 들려다오.” 라고 그네
가 종용하면,

“싫어요. 엄마한테는 하기 싫은 걸
요.”

“자 어서 한번 듣자.”

그네의 끈질긴 노력은 늘 자녀를
설득했고 그리하여 그네는 잘못 받음
된 부분을 시정해 주었으며, 전하고자
하는 뜻을 잘 기억하여 크고 똑바른
소리로 단에 단정히 서서 이야기하러
고 코치해 주곤 했다. 자녀가 단에
올라서서 준비된 대사를 읽는 일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

이토록 훌륭한 이들 부모는 특유의
가풍을 이룬 것이다. 성탄절은 맥
케이 가정에 있어서 누구나 다 기
쁨에 참여하는 가장 즐거운 성일인
것이다. 놀라움과 경이 이것이 성탄
의 한 부분임을 아는 이들 부모는 단
혀진 문뒤에서 비밀 이야기를 속삭이
게 한다. 이날 전달되는 선물은 대개
가 이 12월의 성일 이전에 은밀히 손
으로 준비한 것들이다.

산타크로스의 존재가 실제였듯이
이 할아버지한테 아이들의 매일의 행
동을 보고하는 부라우니(편집자 주 :
스코트랜드의 전설로서 밤중에 나타나
농가의 일을 몰래 해 준다는 갈색의
작은 괴물)의 존재도 실제다. 크리스

마스 트리도 훌륭하게 장만된, 이들의
참 소유물이다. 큰 아들 둘하고 아빠
와 삼촌이 옥든의 어느 입야의 주인
에게 허가를 얻어 잘라온 거다.

일행은 눈쌓인 산으로 올라가 이리
저리 한 나무씩 살피고 다니다가 가장
싱싱하고 예쁘고 가치가 무성한 것을
택하여 잘라 데고 온 것이다. 원래 잘
라온 나무가 커서 거실 모퉁이에 알
맞도록 길이도 자르고 나무 가지도 많
이 쳐 냈는데 엄마는 늘 아이들에게
나무 가지 치내는 일을 시켰다. 또 그
네는 아이들에게 캔베리(편집자 주 :
굴의 일종)와 튀긴 옥수수를 실에 매
다는 방법을 가르쳤고 이를 이 가지에
서 저 가지로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연결하는 법도 가르쳤다. 은색 실과
빨강 색, 초록 색의 공이 달리고 나무
맨 꼭대기에 별이 붙으면 전통적인
이 가정의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은
끝난다. 그네는 아이들에게 모두 양말
을 만들어 주었고 성탄 전야엔 땅콩,
사과, 캔디 그리고 밑에는 아이들을
깜짝놀라게 하는 선물도 장만해 주었
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선물을 장만
하고 가족 전원이 새로 쓸 치솔도 하
나씩 넣어 두는 것이다.

여름의 이 가정엔 또 여름대로의
가풍이 있다. 어린 아이들은 종업식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고 대개 여름 방
학은 헌스빌에서 보내면서 말타기,
헛간 짚더미에 뛰어놀기, 오래된 수
영장에서 헤엄치기 등으로 소일했다.
레이에게 있어서 이러한 변화는 빨래,

다림이질, 조리등의 사려깊은 계획과 정리를 뜻하는 것이었다. 매 여름 방학 휴가중에 쓰이는 식량, 의복이랑 침대 등은 모델티 자동차로 (편집자 주:당시에 있었던 포드회사의 자동차 이름) 운반하거나 그밖의 편리한 차편을 이용했다. 개량된 기구 몇개를 갖추긴 했어도 농장의 생활은 힘든 것이었다. 그러나 여러 해를 두고 그네는 최선으로 주변을 정리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놓은 것이다.

〈선교사로의 남편을 내조〉

1920 년에서 1921 년간의 기간을 그네는 가장 어려웠던 결혼 시절로 기억하고 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장로는 전 세계 선교 구역을 방문해야 하는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이때에 임명된 그의 여행 동반자는 휴 제이캐논이었다. 1920 년 12 월 20 일 이 두 선교사가 일본 요코하마로 출항한 때로부터 여섯 자녀를 보살피고 도시에 있는 집을 돌보고 50 에이커나 되는 헨스빌 농장을 움직여 나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한꺼번에 엠마 레이 맥케이의 양 어깨로 옮겨진 것이다. 그러나 한 마디의 불평도 없이 레이는 자기에게 할당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선교사인 남편을 착실하게 내조했다. 그네는 용기와 신념을 갖고 전적으로 주를 믿는 신앙과 주께 드리는 기도로 주께 의지하면서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는 확

신을 가졌다. 그네의 맏아들이 때마침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기에 일은 더욱 힘들었다.

남편과 개논 장로로 부터는 기쁨에 넘치는 체험이 날날이 기록된 편지가 속속 레이에게 날라들었다.

이 두 선교사는 요코하마로부터 중국 북경으로 다시 배로 여행해 갔으며, 여기서 맥케이 장로는 강한 영감을 받아 그 곳을 북음선교 구역으로 헌납했다. 두번 째로 일본을 방문한 뒤 일행은 호노루루로 가서 19일을 묵으며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성도와 선교사와 더불어 모임을 가졌다.

이 때에 일행은 남해 열도에 가는 배를 타려면 본토에 가야한다는 편지를 받았다. 이들이 본토 남부 해안에 도착했을 때 고향은 그렇게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도 아득해야만 했다. 일행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것은 3월 1일이었다. 여기에 실로 놀라운 일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캐논 형제는 그의 일기에 아래와 같이 기록했다.

……우리를 마중나온 그랜트 대관장님과 아이빈 형제가 맥케이 자매와 캐논자매를 대동한 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그 기쁨이란! 그토록 막중한 임무를 걸머진 위에 헤어날 수 없을만큼 바쁜 그가 각각 생후 6개월이된 아이가 딸린 여자 둘을 그것도 예사 여행이 아닌 먼 여행의 길에 동반했다고 하는 사실은 자기 하나의 평안보다는 남의 행복을 더 깊게 생각한다는 지표로서 나는 여기 기록해 둔다.

교통 문제로 어려운 몇 날을 이 곳에서 머물고 있을 때 앤돈 에이치 펀드형제의 부고가 전달되어 결국 집으로 돌아가 다음배를 기다리기로 결정을 바꾸었다. (역사일기 1921년 3월 28일)

맥케이의 고독했던 처지에서 이러한 사건은 그것이 비록 즐거운 일이 아니었어도 다행한 일이었다. 일행은 기차편으로 옥든지로 돌아와 일단 3월 25일까지 거기 머물렀다.

일주일 후 다시 이들이 타이탄 열도로 향해 항해하면서 휴·제이 캐논 형제는 그의 동반자에 관한 흥미 진진한 아래와 같은 기사를 테세렛 뉴스에 기고하였다.

“맥케이 형제는 이제 완전한 배사람 그것이다. 샌프란시스코항을 떠난 이래 조금도 뱃멀미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부인이랑 아이들의 사진을 꺼내보는 때면 흡사 뱃멀미를 하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다.”

남편이 멀리 떠나있는 동안 한번은 엠마 레이가 경제적 난관에 부딪힌 때가 있었다. 청산해야 할 돈이 좀 필요했던 거다. 있는 힘을 다하여 백방으로 주선해 보았으나 허사였다. 마침내 돈을 지불해야 할 하루 전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잠자리에 꿇어앉아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십사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했다.

다음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방문객은 감독단에 있는 요한 헐 형제였다. 그가 전에는 전혀

방문한 일이 없었던지라 그가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엠마는 저으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맥케이 자매님, 저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제가 마을 어귀로 돌아가려 할 때 무엇인가가 저의 발길을 이곳으로 돌려 놓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마디였다.

“네, 도움이 필요합니다. 들어 오셔서 좀 앉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네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그는 선듯 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내 들고는 필요한 액수의 수표를 끊어주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헐 감독님, 이것, 전—언제 갚을 수 있을지 지금은 막연합니다.”

“염려 마십시오. 맥케이 형제가 돌아오면 처리될 겁니다.”

바다멀리 전하는 그네의 편지는 늘 고무적이고 낙관적이었다. 그리하여 선교사로 일하는 남편을 격려하며 그가 아끼는 가족과 집안 일이 모두 평안하다고 전해 주었다. 사실 모든 일이 원만했다. 1921년 12월 24일 데이비드 오 맥케이가 옥든지에서 기차를 내려 그를 기다리던 가족의 팔에 돌아옴으로서 행복의 상봉은 참으로 의미를 실감하게 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62,500 마일을 여행하며 전 세계를 돌았지만 역시 나의 안식처, 나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처소는 나의 가정이었읍니다.” 그가 기자에게 전했던 말이다. (다음호에 계속)

제 9 회 성 도 의 벗 퀴즈

【문제】 다음에 답 하시오.

1. 신, 구약 성서중에서 제일 많은 장수를 가지고 있는 책의 이름과 제일 적은 장수를 가지고 있는 책의 이름은?
2. 다음의 공백을 메우고 출처를 쓰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_____에서 보던 그 _____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_____있는 곳에 머물
 러 섰는지라. (_____계_____장_____절)

【응모요령】

1. 성도의 벗 제 몇 회분과 주소, 소속 지부명을 명기할 것.
2. 해답은 12월 31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3. 5회 정답자 5명에게는 성도의 벗 1년분을 우승함. (전호까지의 시상 기준을 전부 무효로 함.)

제 7 회 정 답 및 정 답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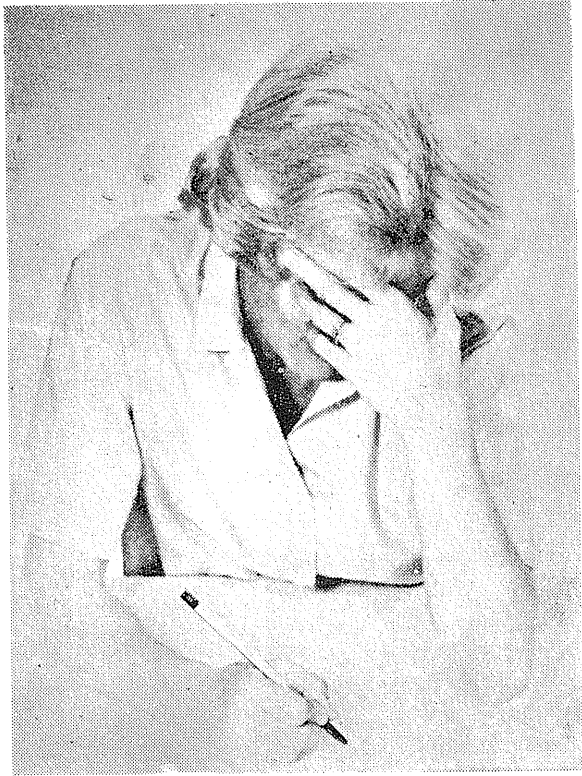
【문 제】 다음을 답 하시오.

1. 한국어판 물몬경의 값은?
 답 한국어판, 물몬경의 값은 150원이며 가죽 표지는 1,200원입니다.
2. B. Y. U. 란 무엇의 약자이며 무슨 말입니까?
 답 B. Y. U. 란 Brigham Young University 의 약자이며 제2대 대관장님의 이름을 따서 지은 우리 교회의 학교입니다. 동 대학교 농구팀은 미국 대학 농구의 정상으로서 7월27일부터 8월 6일까지 한국에 원정 온 바 있었습니다. 문제의 V를 B로 잡아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3. 1967년 12월호 성도의 벗은 통권 제 몇호 입니까?

답 잡지의 표기상 제3권이란 말은 창간호를 낸 후 매 해 거르지 않고 몇 년이 되었는가를 말하는 것이며, 11호란 말은 그 해에 11권째란 말이고, 통권은 창간호 이후 만들어진 책의 누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제된 9, 10월 합본의 오자로 28호가 정답이 되었읍니다만, 본래는 29호입니다. 12월호란 말은 11호와 구별 됩니다.

【정답자】

- 동구지부 방 훈성 형제(4)
 동부지부 고 천석 형제(5)
 청운지부 홍 순모 형제(1)
 ※ 이로서 동부지부의 고 천석 형제는 5회 정답자로서 매월 성도의 벗을 우승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까요?

나는 비 회원과 결혼하였습니다.

<전호의 계속>

— 필자의명 —

깨어진 지혜의 말씀

젊었을 때 저는 훌륭한 표준을 갖고 있지 않은 젊은이와는 결코 데이

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하나의 엄격한 표준으로 갖고 있었으므로 저는 저의 이상에 대하여 의심을 품는 사람은 누구든 계화시키려는 결의를 갖

고 있었습니다.

학교 때 후레드와 저는 아주 가끔 데이트를 하였으므로 저는 모든 면에서 그이가 정결케 되리라는 것을 그에게서 발견하였어요. 담배 피우는 일도 없었고 불순한 언동도 없었고 술도 마시는 일도 없었으며 학교에서 춤을 추던 어느날 밤이 오기전까지는, 가장 훌륭한 소행을 하는 것 이외엔 나쁜 일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읍니다. 그이가 춤을 추려고 팔장을 끼고 저를 데리고 나갔을 때 저는 그의 습결에서 술냄새가 풍긴다고 생각하였읍니다. 처음엔 제가 확실히 알 수 없었으므로 저는 확인될 때까지 기다렸읍니다. 저의 마음은 덜컥 내려 앉았으나 저는 제가 할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읍니다. 저는 그날이 특별한 데이트였음을 충분히 알았으나 저는 후레드에게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했읍니다. 후레드는 저의 당돌한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하였고,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저는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음료를 마신 사람과는 데이트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대답했읍니다. 그이는 자기는 확실히 취하지 않았고 “우애회관”을 떠나기 전에 칵테일을 한 잔 마셨을 뿐임을 지적하면서 사과하였읍니다.

저는 그이에게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주장했읍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그이에게 이미 약속된 앞으로의 데이트는 취소해야겠다는 것을 이야기 하였어요. 저는 그이가 놀라는 듯

한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이 는문간에서 제 걸을 떠나 집으로 갔읍니다. 며칠 후 그는 강의가 끝난 후에 저를 만나서 다시 사과했고 재고해 보도록 제게 간청하였읍니다. 그이는 술을 마시는 것이 자기에겐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하면서 제가 다시 자기와 데이트를 하기만 한다면 다시는 술을 대하지 않으리라고 말했읍니다.

이것을 고려한 후에 저는 그이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 그이는 우리가 결혼한 후 몇 년이 되기 전까지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진실로 저는 그이를 믿었고 그이가 자신을 믿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저는 만약 사람이 자기의 마음속에 복음을 갖고 있지 않고 자신을 위한 표준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다른 압력이 개입되고 더 큰 일로 번져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업계에서 후레드가 점점 성공하자 그이에게 일어난 것이니 그이의 사업 친구와 동료들은 그를 칵테일 파티에 데리고 갔고 칵테일이 따르는 점심 식사에 이끌려 가서 한잔씩 마시기 시작하였읍니다. 그이는 저에게 그것을 이야기 해 줄만큼 정직하였읍니다. 저는 매우 불쾌하게 느꼈으며 그의 약속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므로 저는 알콜 성분이 없는 음료를 마시라고 권하였읍니다. 가끔 술마실 기회가 있었으나 그것이 가치가 없는 일임을 단정했다고 제게 말했읍니다.

그이는 저의 친구와 있을 때는 안 마셨으나 그의 사업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술을 마신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후 그러한 상태가 끝나자 그이는 저를 위해 부드러운 음료를 매우 수줍어 하며 주문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알콜성 음료를 주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를 위해 두 잔을 주문하는 것으로 진보하였고 점점 늘어났습니다. 제가 나의 것과 아이들의 것을 줄이듯 그이의 몫으로 주문하는 양도 줄이도록 해 보라고 그이에게 요청하였을 때 그이는 내 얼굴에 대고 자기 손가락으로 “딱”하고 소리를 내며 급사를 불러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주문하면서 당신은 당신대로 살도록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살도록 내버려둬 달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대로 산다는 것”이 이제 담배피우는 것을 포함시켰음을 저는 알았어요.

저의 생각은 설새없이 우리의 구혼 시절과 결혼 초기의 시절로 되돌아 갔으며 그이가 굳게 약속한 바를 얼마나 제가 완전히 믿었으며 얼마나 제가 그이의 사랑에 의지했고, 의미있었던 저의 사랑에 의지했던가 그리고 너무나도 완전하였으므로 지혜의 말씀대로 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으리라고 그 얼마나 믿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애꿎은 마음을 자 아내에게 하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저의 남편과 사회적으로 “양립할 수

있게”하기 위하여 나는 많은 칵테일 파티에 참가했고 나이트 클럽과 그이에게 호기심을 돋구어 주었던 연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가끔 그이는 저와 함께 교회 파티에 참석하였으나 이러한 것은 해가 거듭함에 따라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자신이 기초를 세운 상태를 침해 받지 않을만큼 강함을 느꼈으나 확고하게 다반사가 된 이래로 마침내는 말만으로 그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것은 제 영혼을 손상시키고 있었습니다. 당신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술에 취하여 공개적으로 그리고 멀쩡하게 남편을 옆에 두고 당신에게 키스하려 할 때 라든지 그 후엔 모든 사람이 점점 더 취하게 되고, 속도가 더 빨라지고 더욱 광란해 질 때, 자기의 표준과 매우 다른 표준을 가진 사람들과 자주 사귀며 진실로 다정하게 지내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변함없이 이러한 저녁이 계속되자 저는 머리속에 우리 와드의 의로운 사람들을 그려 보았고 신권과 신권의 권능과, 그들은 얼마나 잘 신권을 공경했고, 감지게 하였으며, 복음의 원칙을 준수하고 신권의 훈련을 받으므로서 보통의 인간이 얼마나 뛰어나게 되며,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를 술 취하고, 불경스럽고, 여자인 부인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그러한 장소에 데리고 갈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는 아무도 없으리라는 것이 얼마나 평범한 일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관찰하고 비교하였을 때 판단이 내 마음속에서 불탔으며 저는 전보다 더 복음을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었고, 그것을 따르며 감각에 호소하는 소위 낮고 달은 밤의 생활을 하는 사람을 태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습관을 계속할 수 없음을 단정하고 조용히 저의 남편에게 우리의 오락을 교회 활동이나 아이들을 동반할 수 있는 장소에서 더 많이 찾기로 한 저의 열망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협력 정도는 기대했습니다만, 그이의 대답은 제가 그이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그이는 혼자 카테일 파티에 참석하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이는 그의 뜻대로하였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비참하게 여러 날 저녁을 보내면서, 혼자 참석한 후레드가 처한 환경을 그려보곤 제 마음이 그이에게 줄달음질치고 있는 동안 저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듯이 나타내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근본적인 신뢰와 신념을 갖지 않는 것은 고된거리임을 저는 배웠습니다.

저는 감독에게 자문을 청했고, 그는 제게 후레드와 함께 가기를 계속하거나 그이가 유혹받은 상태에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도록 해 보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감독은 저를 축복하여 저로 하여금 저의 결혼 생활을 구하고 저의 이상이 계속 진실하게 달성되도록 부가적인 힘을 주

었습니다. 그것은 한량없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곧 저의 남편은 그의 사업에서 실패하며 우리는 여분의 돈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하여 우리의 오락은 줄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의 장애라기 보다 하나의 축복으로 간주했으며 기뻐했습니다.

진리의 인식

비회원과 결혼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마, 저는 그이가 발전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의 애인과 나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가 저에게 자기의 신앙 밖에 결혼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얼마나 환멸을 느끼는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예를 들어 지적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하였고 어떤 사람은 전혀 자포자기한 가운데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반려자가 개종하게 되고 해가 갈수록 웅맹스러움을 입증한 사람들 보다는 위와같은 성질의 결혼을 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통계는 이것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인 우리는 이것의 가능성을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열망과 “장미빛 유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한 몇 가지 의형적인 징

후만을 보도록 우리가 매어져 있는 것을 제외하면 우리의 결혼이 성공하리라는 것을 어떠한 근거에서 주장할 수 있었습니까? 다만 성령만이 장래의 배우자의 합당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간증 없이는, 우리의 의견은 바라는 바에 대한 생각 이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사람이 당면하는 무서운 장애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개종하지 않거나 단지 한사람만 개종한다면 그 부부는 점점 더 사이가 벌어지도록 밀릴 것이며, 특히 회원이 복음의 가르침을 고집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하므로서 영의 성장은 공부와 실천과 성령을 받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히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하며 성장을 통해 영생에 대한 활기찬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 있어선 사실입니다.

결혼 반려자 두 사람의 영적인 비교는 쌍방을 다 놀라게 합니다.

비회원은 믿는 자와 행하는 자의 보호적인 그늘에서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대로의 생활로 인도해가는 영향력이 그를 형성시키며, 만약 이러한 것이 불의한 것이라면 그는 실제로 양자가 타협할 수 없는 틈을 만드는 방향으로 이끌립니다.

제가 젊은이에게 남겨 주고 싶은 말은 이러한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잘 유의하십시오. 왜냐 하면 그것은 유일한 것이 아니며 혼란 애기이기 때문입니다. 제 주위에는 의로운 남자들

이 몇몇 있으며 우리 와드에 있는 몇몇 여자들의 결혼 생활은 그들이 비회원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사소한 일과 정도에만 차이가 있을 뿐 우리의 결혼과 대동소이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이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겪어야 할 손실적인 경험으로 괴로워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 통합된 복음의 생활을 가져다주는 유익한 축복도 또한 상실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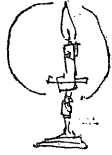
저는 지금 또 다른 비극적인 결정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연속된 이 불화의 생활은 그 결과를 가져왔고, 얼마전에 나는 심장병을 앓았습니다. 더딘 회복기가 지난 후 의사는 저에게 제가 살고 있는 생활에서 오는 감정적인 압력을 제게서 제거하거나 사랑하는 저의 세 아이들을 기르기 위하여 제가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이 문제만을 고려하더라도 저의 남편은 회개하지 않는 분이예요.

만약 당신이 저의 입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끝)

편집자주 : 성도의 벗에서는 여러분의 신앙 체험기를 심고져 합니다. 어려웠던 생활을 극복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신앙 체험기를 보내 주십시오.

편집자에게



좀더 알찬 내용을

금번 9, 10월의 합본은 완전한 책의 면모를 갖춘 것 같습니다. 지난 호의 지방대회 특집을 읽고 더욱더 바른 자세의 신앙을 읽을 수 있었으며 교리 문답을 통해 선교회의 교리와 알지못했던 의식 절차등을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특히 “배달된 고 김 호직 박사님의 편지”의 기사는 박사님의 유덕을 말로만 들어오던 저인지라 너그러운 웃음을 띠우면서 그 분을 뵈는 것같은 선함을 느꼈습니다.

성도의 빛이 아무쪼록 알찬 진리를 갖고 늦잠에서 깨지 못한 성도들에게 경종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등부지부 고 천석

편집자귀하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한 것이 참다운고 그러한 것이 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이 어려울 때 우리에게 경종과 일깨움을 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새삼 고마움을 느낍니다.

특히 예언자의 말씀은 물론 가정의 아람 담고 복된 생활을 꾸밀 젊은 청년들에게

이상을 가지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더욱이 참되고 훌륭한 물론 가정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세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음에 얼마나 생의 회열이 있는가를 깨우쳐주는 훌륭한 계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방부대회에서 들려주신 여러 지도자들의 고마우신 영적인 말씀은 그 기회에 참석치 못한 이들에게 큰 보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2주만 되면 이곳을 졸업하여 기성부대로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유혹을 이겨나갈 힘주는 말씀들을 들려 주십시오.

나날이 알려가는 성도의 빛에 무한한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의심없이 믿읍니다.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병 박 문정 형제가 드립니다.

군우 156—유군병기학교

학생대대 3 중대 3 내무반

편집실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끊임없는 그곳 분들의 염려와 기도속에서 복무에 충실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벌써 교회를 떠난지 10 개월이 되었습니다. 그간 사랑에 가득찬 형제자매님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고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리움을 느낄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저의 지부인 서부지부에 세 번 참석할 수 있었음을 무척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이곳 생활에서 매달 보내어지는 성도의 빛은 얼마나 귀한 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소홀해지기 쉬운 저의 신앙에 불길을 가져오게 하고 매일을 즐거움속에서 생활하도록 속삭

여주는군요. 이 책으로써 많은 것을 배워 발전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며 계속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발전과 형제 자매님 머리위에 축복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안에서 부족한 형제 드림

PFC Jung Ji Hun

HQS Btry 6/80th Arty

APO 96251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저와 같이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배로이 여겨지는 성도의 빛을 발송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펜을 들어 “성도의 빛 편집자 앞”이라고 편지하자니 지난 7월 10일 보내주신 편지로 편집자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일찍 답하지 못함으로써 좀더 개인적이고 정다운 감으로 편지할 수 없음을 후회했습니다. 성도의 빛을 받고 있으면 받는다는 연락을 해달라고 청하셨는데 여간 반갑지 않게 받고 있으며 참으로 흥미있게 보고 있다는 연락을 늦게라도 드리려고 펜을 들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김치를 먹어본 적이 없는 저는 그 곳 생활에서 익숙할 수 있었으며, 그 곳에서 여러 형제 자매님의 사랑을 받다가 헤어진 것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 안타까움만이 아닌, 갈라놓은 태평양의 거리를 좀더 가깝게 해 준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편지를 일찍 드리지 못할만큼 바쁘거나 게으르다고 해서 성도의 빛을 즐기지 않는 것은 전연 아닙니다. 얼마전에 새로 받은 물문경을 조금씩 읽는 것 처럼 귀한 것입니다.

금년 1월부터 지난 달 까지 캘리포니아에서 보내기에 앞서 가기전 까지 유타 대학 대학원에 계신 두 한국 가정과 복음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고향에 돌아와 있으니 그분들과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머무는 동안 제가 속한 와드에서 가정복음교육을 통해 한국 가정과 계속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저는 그분들에게 성도의 빛을 신청해 드릴 예정입니다.

펜을 놓기전에 지난 달에 받은 축복 한가지를 전해드립니다.

얼마전 일년에 한번씩 열리는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는데 그 회를 사회하시는 분이 “나와 사이가 가깝고 존경하는 한 젊은 한국 부부가 내일 신전결혼을 하기 위해서 로스앤젤스에서 오셔서 우리 중에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고 소개했다니 캘리포니아에서 저와 친해진 이 영범 형제가 한국에서 모셔온 신부와 함께 훌륭한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저의 어머님과 함께 쉘트레이크 신전엘 가서 30년전 제 부모님이 결혼하시던 바로 그 방에서 이 부부의 성스러운 영원한 결혼 의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교회와 진실한 신권이 회복됨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를 깊이 느꼈습니다.

늘 은총이 그곳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967년 10월 7일

그곳의 친구 스킵 드림

John Stanley Scoville
1801 So. 2nd East
Salt Lake City, Utah
U. S. A.

일 반 용

물몬경.....150원
 물몬경(가죽표지).....1,200원
 물몬이란.....100원
 효과있는 가르침을 위한 제언.....50원
 찬송가.....50원

주 일 학 교 용

그리스도의 생애.....100원
 기이한 업적(상권).....50원
 기이한 업적(하권).....50원
 말일성도란.....100원
 복음의 실천.....100원
 생활을 위한 그리스도의 이상.....100원
 생활에서 본 회복된 교회의 원리.....150원
 성전중의 지도자.....100원
 주님의 멍세이지.....100원
 주님의 멍세이지(교사 보조 교재).....100원
 회복된 교회의 역사.....150원
 이야기로 엮은 구약 성서.....150원

상 향 회 용

강력한 지도력을 통한 인격 강화.....20원
 봉사 이삭줍기반 공과.....100원
 상향회 역원 지도서.....50원
 상향회 선교부 지도서.....50원
 선택의 밤(봉이반 공과).....50원
 장미반 공과.....150원
 지도 원리.....50원

신 권 회 용

아론 신권회 지침서.....20원
 인간과 하나님.....100원
 집사 교문 지도서.....150원
 회복된 성교회.....100원

유년 주일학교

우리의 종교생활(상).....100원
 우리의 종교생활(하).....100원
 주안에서 자라남.....150원
 복음안에서 자라는 어린이.....150원
 어린이 찬송가.....100원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敎會

韓國宣敎部

(住 所 錄)

宣 敎 本 部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淸 雲 支 部	⑦③ 3 9 9 5
東 部 支 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34의 19
	⑨② 1 0 0 5
三 淸 支 部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5번지
	⑦② 3 5 9 6
西 部 支 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58의 1
	⑦③ 1 2 0 8
城 北 支 部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의 13
	⑨② 0 7 4 4
新 村 地 域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7의 13
	③② 4 2 7 9
永 登 浦 地 域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량진동 54의 15
仁 川 地 域	인천시 인현동 20번지 대화제과 2층
	② 9 8 5 2
大 田 地 域	대전시 대흥동 440의 1
	② 6 2 7 3
大 邱 中 央 支 部	대구시 삼덕동 2가 24번지
	② 6 6 5 9
釜 山 支 部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95번지
	④ 7 0 7 1
東 區 支 部	부산시 동구 수정동 658의 10
光 州 地 部	광주시 금동 165번지 이발소 2층
	② 2 6 9 2
全 州 地 域	전주시 남노송동 553의 4
	2 8 1 9

一九六七年 一〇月 四日 公報部分 卷 九三二

성도의 벗

1967年 12月 1日

通卷 第 2 9 號

發 行 人 裴 一 文

編 輯 人 洪 武 光

發 行 所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敎會 韓國 宣敎本部

印 刷 所 寶 淸 齋 印 刷 所